

수원사랑

2013 여름 Vol. 244



수원사랑

제자 : 근당 양택동 (한국서예박물관장)

표지 華城에 내리는 비 - 박종준

한 여름 오후 창을 열어 서장대를 바라보니 고즈넉한 팔달산에 시원한 비가 내린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정막을 옛 선인들도 느끼고 감수에 잠겼으리.

수원사랑 통권 제2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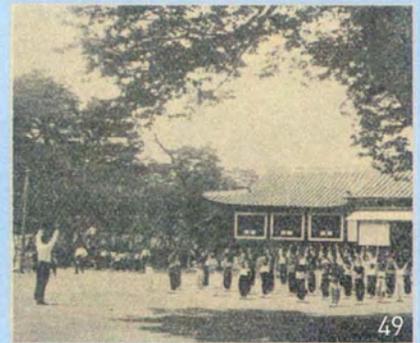
발행일 2013년 5월 25일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장기문 편집주간 정수자
편집위원 한동민, 송수복, 조형기 편집기자 김민서 발행처 수원문화원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전화 (031)244-2161~3 팩스 (031)244-2164

등록번호 2-2-42 www.suwonsarang.com 편집디자인 한언 (031)273-2796

차례

- 권두칼럼
시를 읽는 도시, 수원을 꿈꾼다 문혜원 4
- 시 속의 수원을 거닐다
남문 그리고 언덕의 추억 정수자 6
- 특집 - 수원의 천
 - I 수원의 중심 하천, 수원천 노재현 12
 - II 수원시민들의 추억, 원천 이준구 16
 - III 농업일번지의 젖줄, 서호천 김세영 20
 - IV 서수원의 바람길, 황구지천 홍은화 24
- 수원의 재발견
도시의 숲,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 김훈동 28
- 수원의 길
매산로는 수원의 '1번길'이지요 김우영 32
- 수원의 사람을 찾아서
수원의 극장 간판화가 김승엽 염상균 36
- 수원의 약속
수원시민의 생명수, 약수 송수복 40
- 시장이야기
착한 동네 시장, 권선종합시장 조형기 44
- 수원의 최초
수원 최초의 근대식 학교 - 신봉초등학교 한동민 48
- 사건으로 본 수원
수원의 홍수 그리고 치수 이달호 52
- 수원의 추억
골목집 이야기 김학민 56
- 팬(fan), 펀(fun), 판 김종화 60
- 마을만들기
누구나 함께 즐겨요 심숙영 64
- 소식&안내
문화원이 한일 & 할일 68
- 화보
청명산 망태버섯 이해준 2
성곽의 여름밤 설병훈 70







청명산 망태버섯 (이해준)

시를 읽는 도시, 수원을 꿈꾼다

문혜원 | 아주대학교 국문과 교수

작년 가을부터 수원 시청에 '수원희망글판'이 걸렸다. 일 년을 사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마다 좋은 시나 산문 구절을 게시함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대민 봉사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글판의 글귀를 선정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물론 '수원희망글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광화문 글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맛집의 원조를 따지는 것보다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글판'을 시민 행정을 대표하는 장소에 걸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서울시 광화문이나 수원시청이나 마찬가지로 상징성을 띤다. 시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는 생각이 '글판'의 형식으로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도모하는 가장 보편적인 매체가 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종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딘가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모두는 라인 밖에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두고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무의미한 수다와 서핑에 정신이 팔려서 실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시간이 없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실상은 모두가 모두에게서 소외되는 기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열망하고 삶을 짓누르는 억압을 치유하는 힐링을 꿈꾼다. 잠시 숨 한 번 고를 시간과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숨 한 번 고를 시간'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다. 예능프로그램을 보면서 울고 웃고,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정신은 더 산만해지고 마음은 더욱 공허해진다.

그래서 시 한 구절을 읽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연결된 모든 매체들은 우리에게 철저히 수동적이기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연결을 끊고 혼자가 되어보는 일이다. 외부에서 오는 소음들을 차단하고 시와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잊혀졌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시에서 희망과 위안을 발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타자에 대한 연민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얻을 수도 있다. 미리 정해진 답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읽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 얻는 내용은 달라진다. 시는 사람들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킨다. 시를 읽으려면 마음을 열고 느끼고 정신을 들여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만큼 '나'의 노력과 정성이 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숨 쉬게 한다. 시 한 구절을 읽으며 사람살이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숨을 쉬는 시간이다. 내 것이 아닌 것들로 늘 어수선한 삶에 제동을 걸고 휴식과 성찰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수원희망글판'이라는 말처럼, 시를 읽고 거기서 삶의 숨결과 미래의 전망을 찾는 도시, 수원을 꿈꾼다.



수원 남문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최동호

1

수원 남문에서 감돌던 습습한 바람이 옷자락을 끌어당겨
일손을 놓고 달려와 팔달산 언덕을 오르면
낮은 담장과 굽은 성터에서 풍겨오는
푸근한 흙냄새가 어머니 젓가슴처럼 향기롭게 나를 반긴다.
담장 아래 토닥거리는 다람쥐 같은 햇빛과
오밀조밀한 거리를 걷는 수원 사람들의 느리고
뒤끝이 흐린 말소리가 들려온다.
외할머니 집으로 가던 골목길은 끊어졌으나
풍상의 세월을 열고 닫는 수원 남문은
말없는 증언을 주춧돌 밑에 새기며 의연하게 서 있다.

2

옛날 친가에서 도망 나와 숨어 살던 정희 고모가
은밀하게 나를 손짓하며 부르던
수원 지원 옆 돌담길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렸지만
들쭉 갈던 입술로 부르던 목소리는 아직도 나에게
중학생 시절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킨다.
방과 후 어느 날 놀러가 무심코 낡은 목조대문을 밀치자
빙긋하게 열린 화령전 앞마당 작약꽃밭은
불타는 아름다움을 내 영혼에 점화시킨 최초의 불꽃들,
나는 지울 수 없는 그 내면의 불꽃을
치열하게 불태우기 위해 열렬히 노력하며 살지 않았던가.

3

범람한 수원 천변에서 버들피리를 잡던 여름날은
내 유년이 투명하게 빛나던 물의 카니발, 나의 문학은
팔달산 솔나무에 떨어진 한 점 빗방울에서 태어나
물길을 따라 먼 바다로 나가 성숙했으니
이제 나 방랑의 뭇폭을 거두고 다시 유년의 언덕으로 돌아가
잔잔하게 시가지를 굽어보며 떠오르는 태양과
산 너머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리라.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집과 거리는 시야에서 사라져가도
골목길에 굽이돌던 수원 사람들의 향기는
내 영혼의 푸른 책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게 하리라.

4

지금 팔달산 언덕 남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앳된 목소리는 해묵은 수원성을
허리에 두르고 자라나 세상의 중심에 자리를 우뚝 세우리니
언제나 수원 남문 언덕에서 불어오는
습습한 바람에는, 저물녘
서늘한 산기운이 갑자기 다가와
선득한 기분으로 뒤돌아보지 못하던 초저녁, 신흥학교 운동장까지
마중 나와 놀란 가슴을 쓸어주며
다독거리던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담겨 있다.

- 「수원문화 인인화락」 창간호(2012. 12)

남문 그리고 언덕의 추억

정수자 | 시인

남문은 수원의 상징적 장소다. 수원 사람들은 팔달문을 남문으로 불렀다. 수원 화성의 남쪽에 있는 문이라 남문으로 통했던 게다. 화서문은 서문으로, 장안문은 북문으로, 창룡문은 동문으로, 문의 방향을 구분했으니 돌아보면 얼마나 편리한 별칭인가. 팔달산을 ‘팔달산’이라 불렀듯, 별칭으로 통하던 화성의 문들은 최근에 본래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문은 성 안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 수원의 일번지로 수원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해온 세월이 길다. 남문을 에워싸고 있던 중앙극장이나 중앙다방, 그 뒤편으로 난 길은 청년들의 연애장소요 모임장소였다. 일명 ‘로데오거리’로 수원의 유행과 풍속도를 담아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지동 쪽으로 수원천 양편에는 시장이 번성했다. 영동시장을 필두로 팔달문시장, 천 건너편으로는 못골시장과 지동시장 등 지금도 사람 냄새 많이 나는 시장거리다. 하긴 사람이 모이면 장이 서게 마련 아닌가.

남문과 그리운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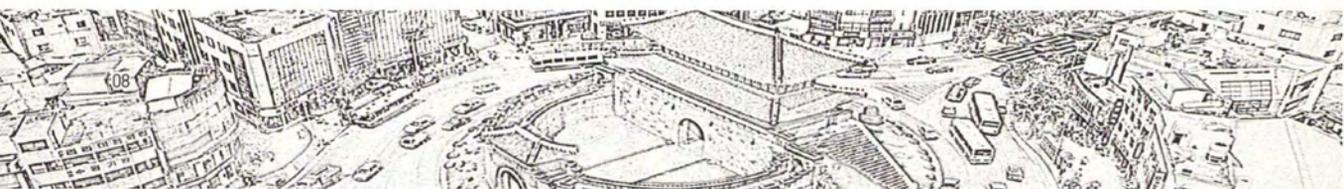
이번에 거닐어볼 시는 그런 남문 주변을 그린 최동호 시인의 「남문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남문 언덕이라니, 그건 곧 팔달산을 안고 오르는 언덕의 또 다른 이름이겠다. 언덕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앉거나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이자 먼 데를 한참씩 바라보게 하던 참 그리운 이름이다.

시인에게도 언덕은 “낮은 담장과 굽은 성터에서 풍겨오는 / 푸근한 흙냄새”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어린 시절 한때를 남창초등학교에서 보낸 시인답게 “어머니 젓가슴처럼 향기롭게” 돌아 뵈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기는 느낌이 그리울 때면 시인은 서울에서 불현듯 달려와 “남문 언덕”에 안기곤 했던가 보다.

그런데 시에서 재미있는 게 보인다. “오밀조밀한 거리를 걷는 수원 사람들의 뒤끝이 흐린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것. 아, 그 무렵 1970년대 전후 수원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랬던가? ‘수원깍쟁이’라는 별칭에서 풍기는 느낌과는 다른 기억에 수원의 말투를 새롭게 다시 본다.

“무심코 낡은 목조대문을 밀치자 / 빙긋하게 열린 화령전 앞마당 작약꽃밭”도 새겨볼 기억이다. 정조의 어진을 모신 화령전은 나혜석 그림에도 작약과 함께 등장한다. 축성 때 없던 작약이 일제강점기에 생긴 연유야 어떻든 중학생 시절의 시인에게는 작약이 그중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다. “불타는 아름다움을 내 영혼에 점화시킨 최초의 불꽃들”이라니! 그렇다면 평생 시의 불꽃이기도 하리라.

수원천에는 유년의 추억이 가득하다. “범람한 수원 천변에서 버들피리를 잡던



여름날은 / 내 유년이 투명하게 빛나던 물의 카니발”이었다니, 문학의 원천으로 삼을 만한 물의 기억 같다. 물이 우리의 근원이자 귀소임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시인에게는 수원천이 남다른 의미를 지닌 곳이다. “팔달산 솔나무에 떨어진 한 점 빗방울에서 태어나 / 물길을 따라 먼 바다로 나가 성숙했다”는 회상은 그래서 더 각별히 다가온다.

고향 언덕에서 심고 나누는 시의 향기

최동호 시인은 요즘 남창동의 오래되고도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경륜을 싣고 있다. 수원의 인문학에도 새로운 향기를 엮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동호의 무료시창작교실>은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수원 시민에게만 수강을 제한하다고 선포해도 그 선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멀리 강남에서까지 우정 찾아오는 이들을 내치기엔 너무 야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원을 늘 넘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후문이다.

사실 시인은 남창동에서 태어났지만 외지에 나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전학을 왔다. 그리고 수원중학교 때 전학을 간 경우라 수원에서 보낸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약력에 늘 ‘1948년 수원 출생’을 적어왔고, 지금도 첫줄에 그것을 밝혀 적는다. 그런 점에서 국문학자로 문학평론가로 활동 폭 넓은 최동호 시인의 수원 사랑을 엿보며 또 다른 긍지와 반가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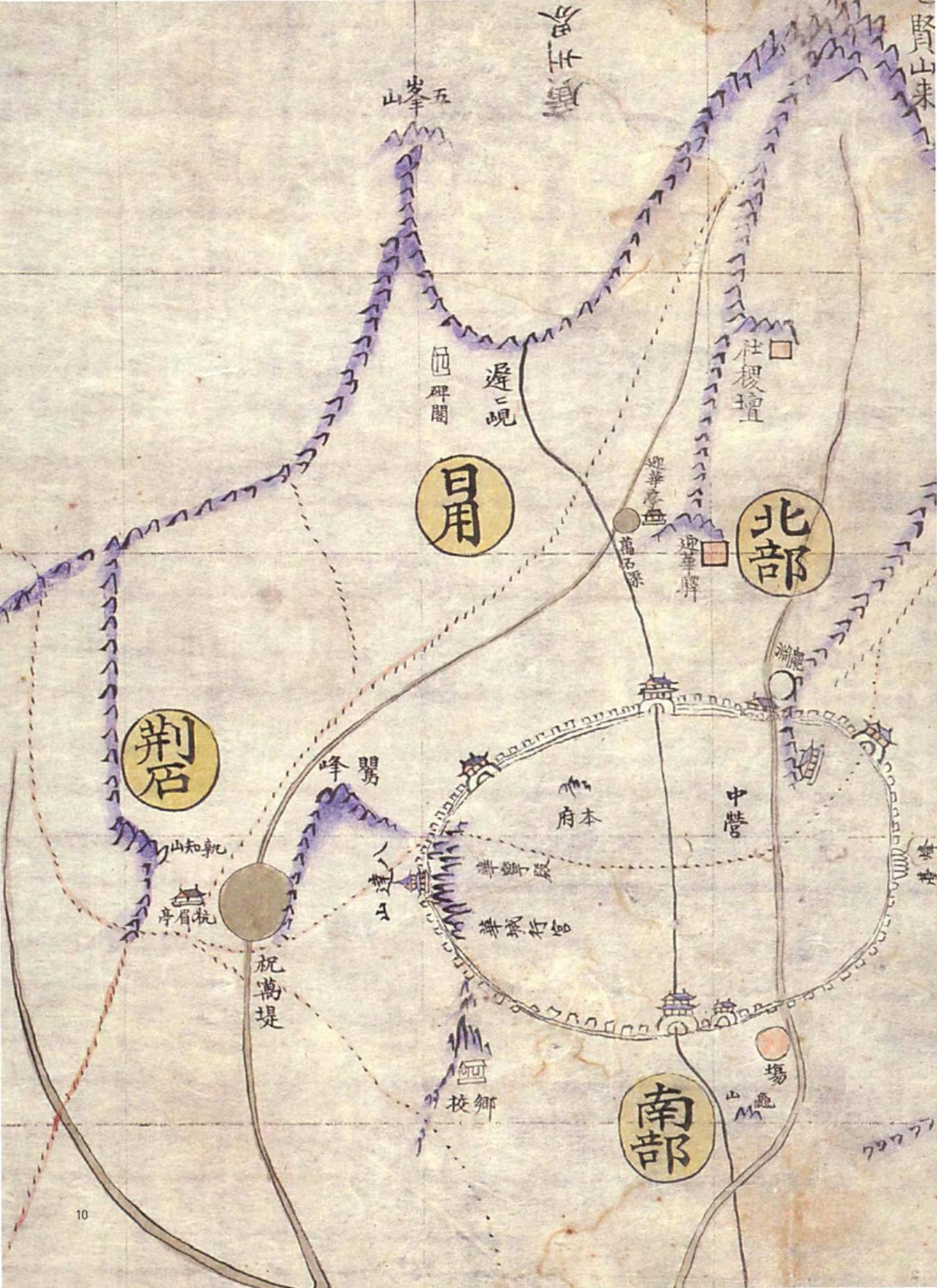
수원을 향한 마음은 정년(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후의 귀향 준비로 이어지고 있다. 고향의 사람들과 함께 수원의 새로운 마을과 문화 만들기에 열정과 경륜을 기꺼이 보태는 것이다. 시인의 남다른 기획력과 추진력을 아는 주변에서는 이후 실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새로운 귀거래사, 인문적 실천의 꿈

그러므로 시인의 수원 사랑을 같이 읊조려본다. “이제 나 방랑의 뚝뚝을 거두고 다시 유년의 언덕으로 돌아가 / 잔잔하게 시가지를 굽어보며 떠오르는 태양과 / 산너머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리라. /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집과 거리는 시야에서 사라져가도 / 골목길에 굽이돌던 수원 사람들의 향기는 / 내 영혼의 푸른 책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게 하리라”고!

새삼 귀하게 새겨지는 귀거래사(歸去來辭)다. 그 또한 남문의 품이자 향기요, 수원 출신임을 잊지 않으며 한국시의 지평을 넓혀온 한 문학교수의 고향 사랑일 것이다. 그런 사랑이 시의 향기로 더 널리 퍼지며 우리의 수원 산책도 더 즐겁게 하리라. 인문의 향기 속에서 더 깊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만나리라.





賢山來

五峰山

五峰山

柱稷壇

邊三峴

西碑閣

日用

北部

迎華亭

舊石梁

迎華亭

荆石

山知軌

抗肩亭

祝萬堤

翼峰

邊三

府本

中營

華營殿

華營行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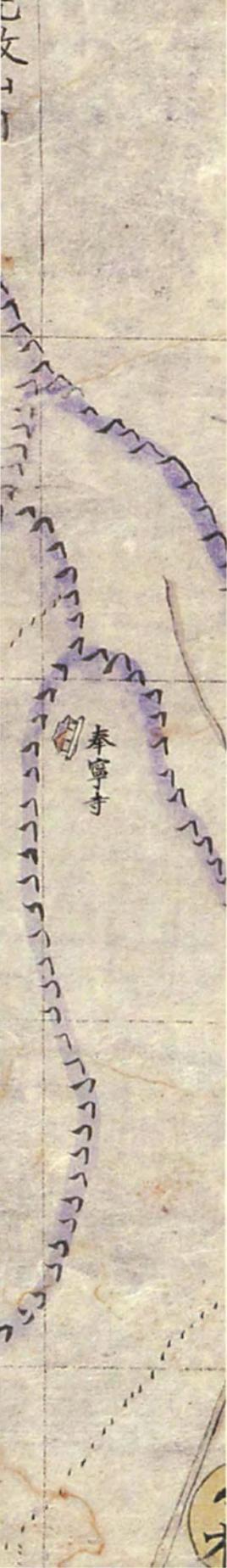
湖

鄉校

南部

場

龜山



특집

수원의 천



수원의 중심 하천, 수원천

노재현 |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

화성성역과 그린인프라(Greeninfra)

수원천이 부각되고 정치·사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 정조시대 화성 건설을 통한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과정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계획도시로서 화성의 조영에는 몇 가지 괄목할만한 특징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원 내부를 관통하는 수원천변 치수와 수리시설의 확충 그리고 성곽 주변에 대규모 식수(植樹)사업을 통해 경관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화성전도를 살펴보면 팔달산 일대의 능선부는 물론 성곽 주변으로 소나무와 낙엽활엽수가 다수 분포하고 있었고 조선후기인 1906~1907년까지도 행궁의 신평루와 향교 뒤, 팔달산은 소나무가 저밀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사대문 주변부 및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주변부는 화성 구축시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낙락장송(落落長松)으로 변화하였으며 수원천변에도 버드나무 대경목이 잔존하였음이 확인된다. 1933년까지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다가 일제강점기 후반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잔존림은 안타깝게도 완전 쇠락하였고 단지 수원천변에 버드나무는 약간의 보완식재가 이루어졌다.

화성건설의 핵심인 성곽과 수원천 주변의 소나무와 버드나무 식재사업을 비롯



1907년 수원천의 풍광(헤르만 산더)

하여 대유둔전(大有屯田)과 만석거(萬石渠), 서둔(西屯)과 축만제(祝萬堤)의 건설은 도시경제와 생태계의 순환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화성 성역사업은 물의 순환과 대규모 식수사업을 통한 도시인프라 구축과정의 일환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조시대 화성 성역사업은 지속가능한 물의 이용과 자연생태계를 존중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키우기 위한 그린인프라 더 나아가서 청색(Blue) 인프라 구축의 시도였음을 뒤늦게 우리는 교훈으로 자각하고 있다.

수원천의 옛 이름, 유천(柳川)

화성성곽은 기존의 읍성이나 산성과 달리 자연지세를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자연친화적 조화를 이룬 구조물로 축조되었다. 이는 일찍이 정조가 성역 직전에 수원의 지형, 지세와 수원천의 흐름을 살려 버들잎 모양의 성 형태를 구상, 산지와 평지 조건



「華城圖」에 나타나는 수원천

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축성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축성 공사가 시작된 1794년 정월에 정조는 화성에 내려와 성터를 둘러보고 난 후, 성역소의 총리 대신을 맡고 있는 채제공(蔡濟恭:1720~1799)에게 이 곳 땅이 ‘유천(柳川)’이므로 성은 남북으로 약간 길게 하여 버들잎과 같아야 할 것이라는 뜻을 알렸다.

수원천이 지나는 세류동에 세운 상류천(윗버드내:上柳川), 하류천(아랫버드내:下柳川)이라는 도로 표지석은 수원천의 옛 이름이 유천임을 확인시켜 준다. 수원을 일명 유경(柳京)이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긴 버드나무 숲길의 모습은 장관은 능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생태하천과 문화경관으로의 수원천, 그 명암

수원을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에 걸맞은 만큼 화성 성곽의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방화수류정의 용연, 상·하의 두 남지와 북지 상·하 동지 등의 몇몇 연못과 더불어 수원의 도시적 풍광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기능을 다하게 한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970~19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이 오염되고 쓰레기가 쌓이면서 자연생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수원천이 2012년 4월 수원천 매교-지동교 사이 780m 구간이 복원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복원구간의 하천에는 분수와 징검다리가 만들어지고, 하천변과 교각에는 이벤트광장과 생태습지,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튜립축제의 장으로서도 활용·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천 복개 구간을 복원하면서 수원천이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온전하게 되살아났는지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다. 또한 그 주변에 만들어진 여러 조형물 및 조형적 요소가 화성의 역사문화경관과 일체화가 될 수 있을 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수원천 복원은 깨끗한 물줄기를 되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화성의 건축시설물들은 하나둘 복원이 되고 있으나 조경의 핵심 현장인 못[池塘]은 북성 밖의 용연만 정비되었을 뿐이다. 남서적대 옆 남은구안의 상남지와 하남지, 북서포루 옆 북은구 안의 북지, 매향동 어귀와 구천북방의 동지는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수원의 상징인 버드나무와 세류천의 능수버들의 춤추는 모습

은 온전하지 못하며 수원천의 복개와 그 이후의 복원 및 이에 편승한 도로확장으로 긴 버드나무 숲길은 간헐적으로 존재한다.

수원천의 버드나무가 온전하고 생기 있게 춤추는 진정한 수원천의 원형경관을 찾는 일 또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맑은 물 흐르는 수원천의 물안개와 매향교 부근에 핀 꽃구경 그리고 화홍문에서 남수문으로 이어지는 긴 제방의 버드나무 숲길 그늘 따라 화홍문 홍예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수원의 자랑이자 표상(表象)으로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갈망한다.

‘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과 ‘역사문화경관의 형성’이라는 수원천의 2가지 환경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정조시대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새로운 그린인프라, 블루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문화경관으로서의 수원천’으로의 변모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의 수원천

수원시민들의 추억, 원천

이준구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풍, MT, 결혼식, 뒤편이, 보트, 오리배, 유원지’. 원천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원천유원지다. 1970~2000년대 초반까지 명맥을 이어온 국민관광지다. 당시만 해도 수원 인근에 그나마 놀이 시설을 갖춘 행락지라고는 원천이 유일한 곳이어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소풍장소였다. 대학생들의 MT행렬은 서울에서까지 이어졌다. 결혼식 뒷풀이의 단골 장소가 됐다. 광고산을 발원지로 하는 원천저수지는 본래 일제 강점기인 1929년 농업용수용 저수지로 개발돼 농사용으로 귀중하게 쓰였다. 위로는 윗방죽이라 일컫던 신대저수지가 있다. 인근에서 여천과 가산천이 유입된다. 상류지역은 산지와 농경지 그리고 호소지역으로 구성돼 다양한 생태환경을 이루면서 각종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장소다. 광고산 동쪽 자락으로부터 흘러내려 신대와 원천저수지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남은 물들은 원천을 따라 황구지천을 거쳐 서서히 아산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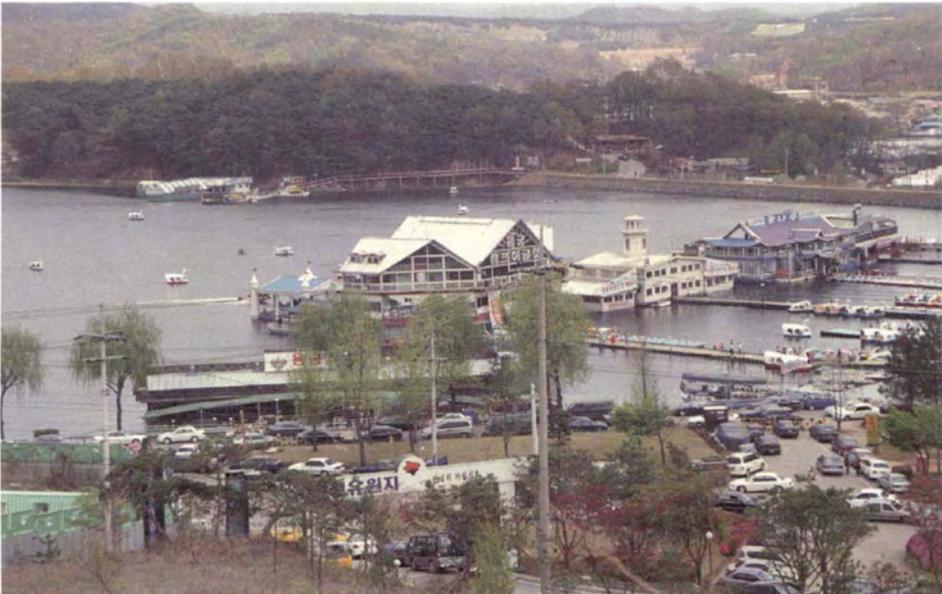


원천 점보 풀장(2000년, 수원시청)

흘러내려간다.

‘먼내[遠川]’라고 불리는 잉어 낚시터로도 이용되었고, 저수지 주변의 울창한 소나무숲이 인공호수의 정취와 잘 어울려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시내 학교들의 소풍장소였지만 수도권 대학생들이 MT장소로 많이 이용하면서 원천이 수도권 주민들에게까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원천은 1975년 8월 15일 수원역까지 개통한 수도권 전철의 영향으로 유명세를 탔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공원개발계획에 따라 1981년부터 각종 위락 시설과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시작됐다.

호수 건너편에는 여러 채의 방갈로와 산책로가 있었으며, 포도밭 등 과수원도 가까이 있어 수원을 대표하는 유원지가 됐다. 원천저수지는 광교저수지, 만석거, 서호와 함께 수원의 젖줄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유원지 또는 관광지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곳이 원천이다. 이 때부터 조성된 점보플장, 파도플장 등 두 개의 대형 수영장, 수상가옥, 연인들을 위한 2인용 보트와 오리보트, 다양한 수상레저 장비가 구비됐다. 원천랜드와 그린랜드 등 두 개의 테마공원에는 비룡열차 바이킹 타가디스코 등 젊은이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각종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원천유원지(2000년, 수원시청)

무허가 건물 시비를 겪으면서 수십 년간을 물 위에 떠있던 용궁과 수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춘남녀들의 만남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수원경찰서장의 권총 도난사건으로 권총을 찾기 위해 잠수부가 동원된 일이 있었다. 두꺼운 얼음을 깨고 저수지에 들어갔으나 권총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2000년쯤 잠수부는 또 동원됐다. 강직하기로 전국에서 소문난 H모 총경이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잠수부를 동원했다. 드럼통을 물에 둥둥 띄워 만든 수상 음식점 용궁과 수궁이 과연 불법 건축물이나,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당시 ‘원천의 봉이 김선달’로 소문난 음식점의 K모 사장조차 화들짝 놀랐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호숫가 주변으로 분위기 있는 찻집들도 있었다. 그 중에 카페 범바위 찻집은 많은 시인들의 소재가 됐을 정도로 운치 있던 곳이다. 카페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산비탈 아래 급경사라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조심을 해야 했다. 저수지와 바로 맞닿아 있어 분위기는 가히 환상적이다. 차가 맛있기로 소문난 데다 민가를 개조해 만들어 고향집 분위기를 만들어 찾는 이들이 유난히 많았다. 전통 카페답게 십전대보탕과 쌍화차, 대추차, 오미자차들을 즐길 수 있는데, 이곳에서 직접 달여 내놓고 있기 때문에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하게 배어나온다.



원천유원지에서 보트와 배를 타는 연인들(1970년대, 수원시청)

원천유원지는 그야말로 유원지 분위기에 날개를 달면서 각종 위락시설과 함께 러브호텔과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동쪽 호숫가의 레이크사이드 호텔 서쪽 끝에는 리조트 그리고 유원지 정문 오른쪽으로 카페와 러브호텔들이 늘어서 있었다.

‘샤갈의 눈내리는 마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원천의 대표적 카페였다. 호수가 바로 보이는 이곳은 페블비치 호텔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로 원천을 다녀간 이들은 한 번쯤 와봤을 법한 곳이었다.

대형 라이브카페 단군의 성은 수원의 원천 유원지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3층 구조이지만, 내부를 극장식으로 개조하여 1층의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의 모습이 어느 좌석에서든 잘 보이도록 한 곳이었다. 1970~1980년대 가수들의 감미로운 통기타와 피아노 반주. 그 중의 한 명이었던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하다. 밤이면 러브호텔과 카페에서 손짓하는 네온사인의 요란한 불빛과, 저수지로부터 반사되는 현란한 반짝거림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 같은 추억을 담은 원천저수지는 원천을 이루며 중류를 거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공업단지와 주거단지 인근을 유유히 흘러 지금도 서해로 향하고 있다.



원천

농업일번지의 젓줄, 서호천

김세영 | 수원화성박물관 전문위원

축만제 조성 후에 불려진 이름, 서호천

서호천(西湖川)은 수원의 4대 하천 중 하나이다. 수원시 북쪽의 광교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서호저수지를 거쳐 권선구 장지동에 이르는 총 11.52km 길이의 하천이다.

서호천의 이름은 아무래도 서호(西湖)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서호는 농촌진흥청 앞에 있는 대규모의 저수지로 조선시대 정조임금 때에 조성된 것이다. 1799년 축조 당시 ‘축만제(祝萬堤)’라고 이름하였으나, 읍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호라고도 불렸다. 따라서 서호천이라고 불려진 것은 정조대 축만제 조성 이후의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호 축조 이전 서호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근천(沙斤川)은 부(府)의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근원은 광교산(光敎山)이고 동쪽으로 흘러 대천(大川)으로 들어간다. 대천(大川, 현 황구지천)은 부의 동쪽 8리 되는 곳에 있다. 사근천과 용인현(龍仁縣)의 구흥천(駒興川)이 합류하는 곳이며, 또 남쪽으로 흘러 광덕현(廣德縣)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도 수원도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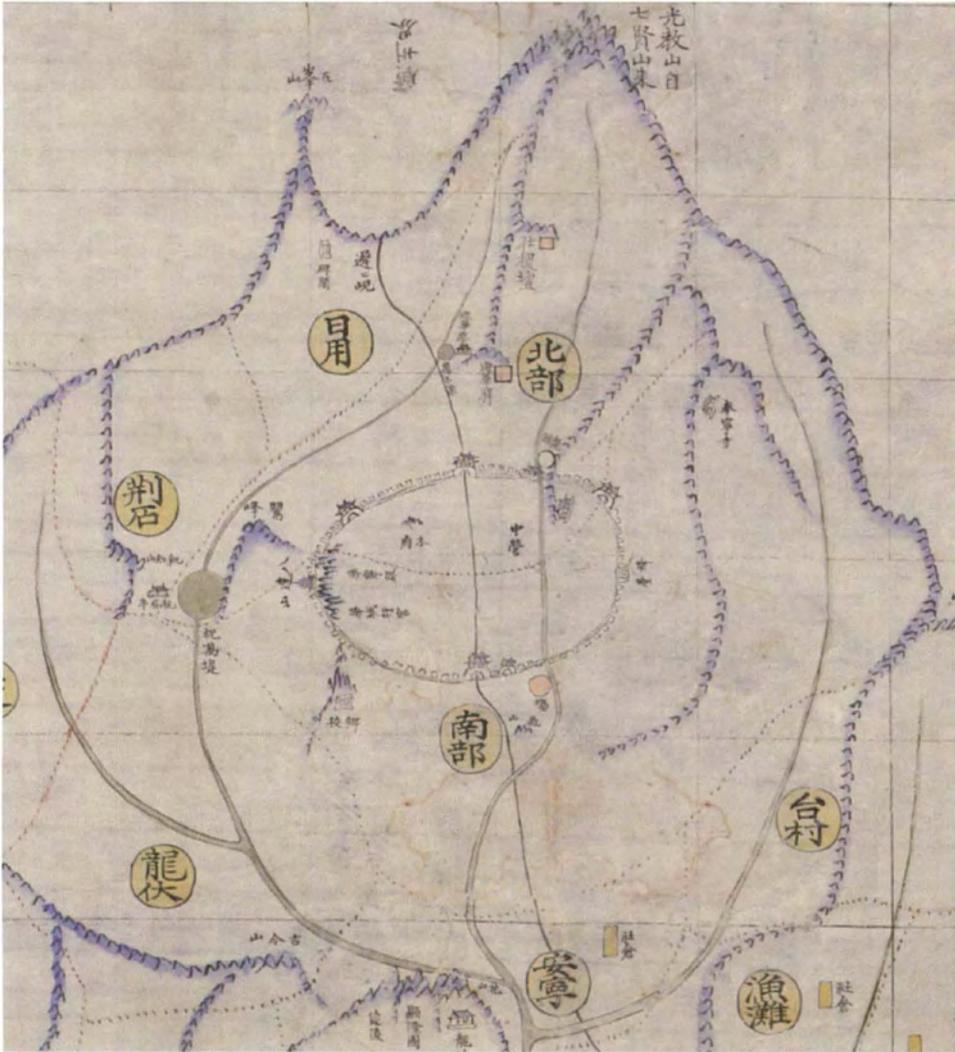
위와 같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지금의 서호천과 황구지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군현지인 『화성지』(1831년)에서는 사근천을 부의 북쪽 15리 일용면에 있고 광교산의 하류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고문헌에서 설명된 물줄기는 1872년(고종 9) 「수원부지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광교산과



축만제 표석

일용면(현재의 파장동, 이목동 일대) 사이에 표시된 물줄기가 바로 사근천으로 보인다. 이 물줄기는 광교산부터 시작되어 만석거와 축만제로 연결되어 그려졌다.

이렇듯 지도 상에 나타난 물줄기와 고문헌의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사근천은 현재의 서호천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조의 능행차와 관련한 일화의 일용면 소재, 지지대고개의 옛 이름 역시 사근현(沙斤峴)이었음을 상기할 때 서호천의 옛 이름이 사근천이었음은 보다 명확해진다.



1872년 수원부 지도(수원박물관 소장) - 왼쪽부터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구흥천이다. 이들 하천은 모두 안녕(安寧: 현재의 화성시 안녕동)에서 합류한다.

서호천의 백미, 서호저수지

서호천은 광고산 자락인 파장동산(367m)에서 발원하여 윗파장천, 이목천, 송죽천, 매산천 등의 소하천이 유입되고, 정자동 지점에서 영화천이 합류하여 서호를 거쳐 장지동에서 황구지천을 만나 서해에 이르는 하천이다. 서호천은 중간 중간에 파장저수지와 서호저수지가 있고, 영화천 상류에는 일왕저수지(만석거)가 있어 상수원과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서호저수지와 서호천 하류에 넓은 농경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시가지나 주거지로 바뀌었다.

서호천의 백미는 역시 서호저수지와 향미정(杭眉亭)이다. 서호 주변에 펼쳐진 농경지와 백로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여기산 그리고 멋들어진 소나무가 서있는 긴 제방길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수원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로 으뜸인 곳이 서호였으며, 1831년 수원유수 박기수(朴琦壽)에 의해 건립된 향미정은 나들이객에게는 더 없는 쉼터로 애용되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치 있는 소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제방길, 벚꽃이 화려하게 핀 향미정에서 풍류를 즐기며 여유롭게 바라보는 서호는 수원사람 아니, 수원사람이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추억의 한 순간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픈 사람들은 저마다의 포즈로 한 장의 사진을 찰카! 수원사람 치고 서호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정도로.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연인과의 데이트에서, 가족나들이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저마다의 서호 이야기를 품는다.



서호저수지에서의 한 때, 1950~60년대(수원박물관 소장)

농업일번지의 젓줄에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

서호천은 본래 물이 매우 맑은 하천으로 못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곳이었다. 축만제(서호)가 정조의 뜻대로 수원 백성을 먹여 살릴 대규모 농지에 물을 대는 목적으로 축조된 것처럼 서호천은 광고산에서 서해까지 흐르며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넉넉히 내어 주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정조대를 이어 1906년에는 권업모범장이 설치되고 다음해인 1907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들어섰던 것이다. 이후 농촌진흥청과 그 부속 작물시험장이 명맥을 유지하며 수원은 일명 '농업1번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로 서호천을 오염시켰다. 오염된 서호천은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병해충의 서식지로 눈총을 받아왔으며, 집중호우 시 가옥과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더 이상 생명의 터전이 되기는 어려웠다.

병든 서호천을 살리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서호천 환경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체계적으로 서호천을 정비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도심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라 서호천가에 갯버들과 갈대를 심고 산책로를 만드는 등 생태도심하천으로서 서호공원과 함께 대표적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로 인해 정자지구·천천지구 등 수원 북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끼고 흐르는 서호천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재인식되었다. 잘 정비된 서호천변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그리고 시민생태농장 등은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에게 널리 애용되는 명소로 부상되고 있다. 지속적인 서호천의 자연환경 복원은 사람을 포함한 못 생명들에게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수원의 대표적 젓줄이 될 것이다.



아파트 숲 속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 서호천(수원시청)

서수원의 바람길, 황구지천

홍은화 | 수원환경운동센터 생태하천팀장

서수원에서 서해로

수원의 서쪽 끝에서 흐르고 칠보산과 함께 서수원의 바람길이라고 불리는 황구지천. 수원의 많은 사람들이 수원천, 서호천, 원천은 알아도 황구지천을 아는 이는 드물다. 황구지천은 수원의 4개 하천 중 가장 유로연장이 길고, 구불구불한 물길이 살아있으며 식물, 물속생물, 양서파충류, 새, 물고기의 종류가 가장 많은 수원의 대표적 자연형하천이다. 또한 수원과 화성의 경계지점인 신대황교에서 서호천, 수원천, 원천을 아우르며 흘러흘러 서해까지 뻗어 나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9에는 황구지천을 '대천'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통과하는 지역에 따라, 수원에서는 '유천',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에서는 '내천' 등으로 불렀다. 황구지천이라는 이름은 '큰 고지가 있는 강'이라는 뜻이며, '뺨친 내'라는 뜻의 우리말 '느러곳이내'가 '놀곳이내'로 되면서 항곶포라 표기하였다가 '항'이 '황'으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구지'는 '고지·곳이(곶)'를 가리키며 항곶진은 오늘날의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에 해당한다.

수원의 최상위 생태천

필자가 황구지천을 오간지는 10년이 지났다. 처음 황구지천에 갔을 때 수원에 아직까지 이런 하천이 남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지인은 황구지천을 수원의 아마존이라 칭한다-반면에 수질상태가 좋지 못해 걱정도 됐다. 수질은 최상이지만 생태적 측면에서 하위인 수원천과 달리 수질면에서는 최하위의 하천이 생태적인 면에서는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것은 사람의 접근이 별로 없었기에 가능했고, 수질상태가 좋지 못한 것 또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천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수원의 8대 깃대종 중에 6종인 얼룩동사리, 백로, 곤줄박이, 애반딧불이, 칠보치마, 수원청개구리의 삶터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황구지천을 모니터링하면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로 예전에는 참개와 민물장어도 살았다고 한다. 너른 들녘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너른내와 그곳에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 밤이면 달뿌리풀밭에 보금자리를 틀던 고라니, 오래된 버드나무위에 앉아 정담하던 말뚝가리 그리고 그 사이를 휘휘 돌던 바람. 가만히 상상을 하면 정지용의 시 '향수'가 절로 떠오르는 그런 곳이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그런데 이 황구지천이 변화의 길목에 섰다. 개발의 바람은 이곳도 지나치지 않아 주변논과 산들이 택지로 개발되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들게 됐다. 사람들은 서서히 저마다의 소리로 하천에 접근하려 한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연형하천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개똥이 지천인 하천공원이 될 까봐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황구지천만은 자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자연형하천으로 물총새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하천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황구지천에서 잡은 먹이를 물고있는 물총새



황구지천 주변에 펼쳐진 논

도시의 숲,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

김훈동 | 수원예총 회장

115만 명이 사는 경기도 수부도시-수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다. 도시립을 갖춘 더 많은 공원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들이 정서함양과 휴식을 위해 녹지공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둔벌에 자리한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 개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생대 수목원은 서둔동, 고색동, 탑동에 걸쳐 있는 221,042㎡에 725종 6,414여 본의 다양한 나무들이 들어차 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들이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해 삼림욕과 휴양 시설로 적합하다. 소나무, 낙엽송 숲에서 뿜어내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는 대기 중 유해물질을 제거해준다.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머리를 맑게 한다. 치유의 숲이다. 수목원 숲은 원기를 회복시키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묘약이다. 삼림욕은 건강을 약속한다. 숲속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진한 초록이 묻어난다. 초록은 시각을 자극해 이를 뇌에 전달함으로써 마음에 안정을 준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 형태의 숲

농생대 수목원은 1907년부터 수목들이 식재되어 온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 형태로 조성한 숲이다. 일명 농대 임학과 '연습림'으로 불리기도 하는 수목원은 국내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 출입문

및 외국에서 들여온 나무들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교수들의 학술연구, 학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식물분류학, 수목식별학, 도시임업, 조경수관리연구 등을 위해 실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도 채집된 나무들의 번식과 재배하는 수목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수목을 연구할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식물자원의 보고(寶庫)다. 지난해에는 산림청 지정,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등록되었다.

농생대 수목원은 자생하던 100년 이상 된 아름다운 전통 소나무를 바탕으로 온대북반구의 자작나무과, 장미과, 물푸레나무과 등 여러 나무 품종들이 심겨져 있다. 다른 수목원과 달리 원예식물원을 뒤 다양한 종류의 꽃나무도 많이 심었다. 국제종자교류를 통해 들여온 외국 종자를 파종하여 나무 묘목을 키워 전시·관리하고 있다.

수목원은 관통 도로를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다. 동편수목원에는 침엽수원, 식이식물원, 활엽수원, 외래식물원, 대 잔디원이 조성되어 있다. 서편수목원에는 리기다소나무림과 활엽수림보호지구, 자생식물보존지구, 노송보존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유실수원, 희귀식물원, 고산식물원, 유전자원보존원, 잔디원, 숙근초관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침엽수원은 그 종(種)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산책길과 넓은 잔디밭 조성되어 있어

농생대 수목원이 개방되면 시민들은 70~80년생 조림수종으로 조성된 숲 속을 거닐며 삼림욕을 즐기고 사색할 수 있다.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행사나 야유회를 즐길 수 있는 큰 잔디밭도 조성되어 있다. '빠름, 빠름' 하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삶의 속도가 때로는 피로하다. 그래서 도시의 인간관계는 가끔 지친다. 침묵과 고요가 필요할 때가 있다. 숲은 말을 건넨다. 숲을 천천히 걷다 보면 바쁜 일상의 속도계가



하늘 향해 곧게 뻗은 소나무



수목원 경내의 나무들

멋고 마음의 시계가 돌아간다.

농생대 수목원 관람은 일부 단체에게만 개방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견학은 허용되지 않고, 유치원, 초·중·고교, 관련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 환경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예약 입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 개방하고 있다. 자유견학의 형태로 숲 해설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수목원 개방 학술용역 보고서 나와

서울대 농생대 출신인 염태영 시장은 수목원을 개방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생태공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3년 전에는 수목원 전면 개방을 위해 ‘학술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 후 수목원의 시민공원화는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과 수원시 간의 학술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예산문제로 답보상태다. 수목원이 개방되면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야 한다. 수목원 출입구도 농대 옆 도로 옛 기숙사쪽으로 출입문을 옮겨야 하고, 안내실, 주차시설, 화장실, 음료식수대 설치, 놀이공원, 방문자센터, 관람안내도, 관람로 및 산책도로개설 등이 시급하다. 수목원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덩굴식물 구조물, 생태연못과 함께 안전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나무 및 숲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을 위한 ‘숲 드림

(Dream)'도 필요하다. 이게 다 돈이다. 시민들은 나무 향기 가득한 숲 속 길을 산책하며 숲이 주는 편안함과 휴식의 즐거움,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한다. 나무와 나무가 어울려 숲이 된다. 수원시와 서울대 농생대가 어울려 수목원이 도시공원으로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길 바란다. 수목원의 숲이 화합과 상생의 묘약이 됐으면 좋겠다.

수목원, 시민들의 녹지공원화 해야

'시(詩)는 나 같은 바보라도 쓰는 것, 아름다운 나무는 신(神)만이 만드신다.' 조이스 킬머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한 그루의 자작나무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221,042㎡ 땅위에 심겨진 농생대 수목원 나무 한 그루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 수목원의 위상을 다시 깨닫게 한다. 숲은 참으로 위대하다.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다. 나무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 솟으며 생명력이 넘치기에 그렇다. 푸른색,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자연과의 고요한 대화 등이 오늘날 시민들이 농생대 수목원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수목원 숲 속의 멋진 산책로

매산로는 수원의 '1번길'이지요

김우영 | e수원뉴스 주간

매산로는 교동 삼거리 옛 수원극장(현재는 웨딩업체가 입점)에서 옛 권선구청, 현 수원가족여성회관 앞을 거쳐 수원역 앞에까지 이르는 국도 42호선 43호선 도로이다. 총연장은 1천 500m에 도로 폭은 20m이다. 매산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명을 따서 매산로라고 했다.

그전에 매산로의 역할을 하던 도로는 현재의 향교길이었다. 이 옛길은 그야말로 버스 한대만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차는 움직이지 못한 채 상대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한쪽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현재의 매산로는 이후 차량 통행량이 점차 증가되면서 새로 뚫린 길이다.

매산로는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으로 가거나 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그런만큼 이곳에는 중요한 관공서나 언론사, 금융기관들이 밀집돼 있었다. 먼저 수원시청이 매산로에 있었다. 수원시청은 1956년 당시 역전동(현 매산로) 가로변의 수원읍사무소 자리에 신축했다. 당시 수원읍청사로 쓰이던 건물은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 향토유적 제 18호로 지정됐다.



수원역전에서 바라본 매산로 옛 길(1956)



옛 수원 전철역에서 바라본 매산로(1990)

주요 관공서 언론사 금융기관이 모두 이 길에

한편 이 자리에 있던 수원시청은 1986년말 현 팔달구 인계동으로 이전하면서 매산로 시대를 접고 인계동 시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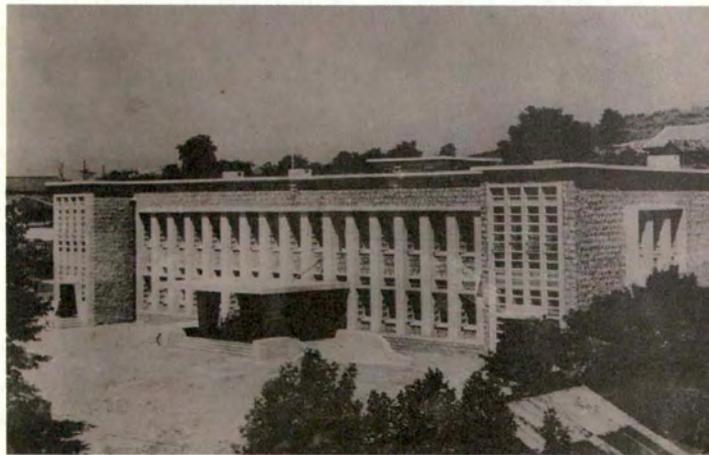
수원시청이 현재 위치로 이전한 후에는 권선구청이 옛 시청사를 사용했으며, 권선구청 마저 이전하고 난 뒤 지금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사용하고 있다. 또 한때 이 건물의 일부는 수원문화원 건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때가 수원문화원 제2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첫 번째 전성기는 고 김승제 원장 시절이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수원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 심재덕 원장시절이었다.

이곳에 수원문화원이 있을 때 많은 사업들이 펼쳐졌다. 수원여름음악축제, 효의 성곽순례,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등 문화행사를 비롯해, 수원천 복개 반대운동, 서호 살리기, 화성행궁 복원사업 등 큰 사업들이 추진됐던 역사적인 장소였던 것이다.

수원문화원 바로 앞에는 한전 경기지사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경인일보가 자리하고 있었다. 경인일보는 이후 동수원 인계동으로 이전을 했지만 당시 건물은 지금도 남아 학원이나 기획사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그 옆 언덕에는 세계침례교 총회장을 지낸 김장환 목사가 시무했던 중앙침례교회가 있다. 중앙침례교회 길 건너 수원역 쪽으로는 수원소방서가 있고 다시 수원역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경기도청 입구다. 도청입구 오거리에는 수원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근에 동해장과 만빈원이라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 이 두 집은 오랜 역사만큼 내공 있는 요리들을 내놓고 있어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또 도청 오거리에서 수원시청으로 가는 길은 웨딩거리로서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現 가족여성회관 자리에 있던 수원시청(1956)

지금은 사라진 매산로의 명물들

지금은 사라졌지만 도청오거리 세무서 정문 길 건너에는 '소골집'이란 허름하지만 수원시내에서 손꼽히는 고깃집이 있어 저녁이면 미식가들이 모여들곤 했는데 시내 버스가 가게로 돌진한 이후 문을 아예 닫아버려 지금도 아쉬움을 자아내게 한다.

세무서 옆에는 뉴 아리랑 호텔이 있었다. 이 건물은 90년대 초 지역 유력인사들의 사교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당시 이 호텔은 다방, 목욕탕, 객실 등을 갖추고 있어 소위 '재력가'들만 출입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그러나 1986년 호텔이 건립된 이후 수년 밖에 지나지 않아 업주의 파산으로 호텔문을 닫으면서 십수년간 폐건물로 방치돼 수원의 대표적인 흉물신세가 되기도 했으나 최근 명작호텔로 깨끗이 단장해 새로 개업했다.

이곳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내려가면 꽤 오랜 전통이 있는 경기간호학원이, 그 옆에는 매산동주민센터가 있고 다시 그 옆에는 KT&G 수원타워가 새로 건축됐다. 그 건물에 서수원새마을금고 매산금고가 있으며 길 건너로는 전 수원문화원장 유병현 씨가 경영하는 극동충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매산 사거리를 지나면 옛 상업은행 자리에 우리은행이 들어서 있다. 건너에는 수십년 된 의원인 해인내과가 위치해 있다.



교동삼거리에 있던 옛 수원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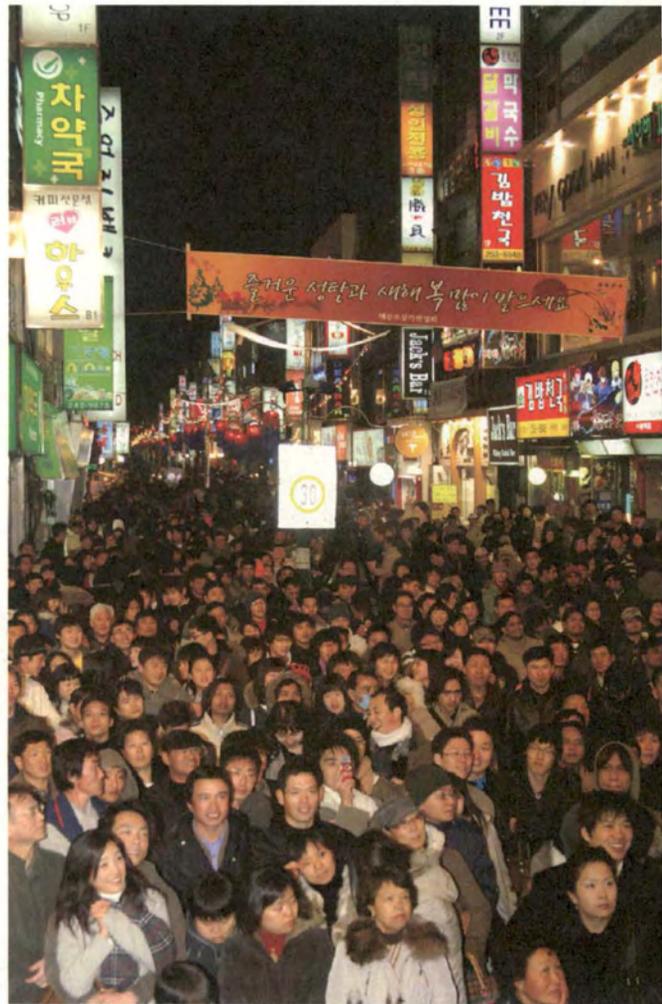
수원역 앞 젊은이들의 거리, 최고의 상권

거기서 다시 역 방향으로 가면 매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길 '계화입구'를 만난다. 계화입구는 예전에 이 길에 계화학교(啓華學校)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아예 계화입구라는 버스 정류장도 있었다.

또 다시 길 건너 역방향으로는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이 있다.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길을 건너면 역전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역전 시장 건너편에는 작은 순대골목이 있다. 모두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골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현재 수원역 앞에는 인근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거리로 흥청거리고 있다. 원래 수원의 상권은 팔달문 인근이 절대적이었으나 이후 장안문 인근, 시청 뒤 이른바 박스지역, 영통 중앙상가, 수원역 등으로 분산됐다. 이 가운데 젊은이들의 거리라면 단연 수원역 앞이다. 특히 역전 향교로 쪽은 밤이 되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북적댄다.

지금은 수원에 길도 많아지고 인구가 115만명으로 늘어 복잡해졌지만 예전 매산로는 수원의 '1번길'이었다. 또한 원호원(현 국가보훈원)에서 수원역까지 운행(후에 농대와 웃거리까지 연장)하던 1번 수원시내버스의 노선이었다. 그때 차창 밖으로 지나치던 정겨웠던 풍경들...그러나 이제 매산로의 모습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고층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더 변화할 것이다.



인파로 붐비는 현재의 향교로

수원의 극장 간판화가 김승엽

염상균 | 경기문화연구원장

수원 극장 미술부의 중학생

김승엽(1940년 생)씨는 1954년 수원극장 미술부에 들어갔다. 중학생이면서 극장 간판을 그리는 미술부에 들어갔던 것은 자신의 미술적 소양보다는 집안의 배경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스무 살 연상이어서 아버지 같았던 형은 일본 동경에서 미술 대학을 졸업하고 수원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렸다. 그러다가 수원중학교에 미술 교사로 자리를 옮겼고 형이 하던 일은 이미 형에게서 능력을 전수받은 이모부가 물려받았다. 소년 김승엽은 이모부 아래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부친의 사망 이후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탓이다. 당시는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변변한 일자리도 없던 시절이었고, 극장 미술부에서 이러저러한 심부름을 하면서 푼돈이나마 받는 것이 가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타고난 그림 솜씨에다가 형에게서 받은 개인 지도, 그리고 이모부에게 익힌 실전 훈련이 작용하여 소년 승엽은 어느새 어른 몫을 감당하면서 수입도 늘었다.



배삼룡 이기동의 운수대통(1980년)

극장 간판계의 대표 화가

‘10년쯤 눈으로 보고 붓이 손에 익어야 겨우 그리던 시절’ 아직도 소년티를 벗지 못한 것 스물 김승엽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문하생을 거느리며 극장 미술부를 장악해 나갔다. 한국전쟁이 마무리되고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어서 사람들은 극장으로 몰려왔다. 스크린에 걸기만 해도 돈이 되는 시절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극장 화가들이 호황을 누렸다. 극장마다 4~5명으로 구성된 미술부를 두었는데 철저한 도제식 운영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수직적인 지휘 계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이가 어려도 김승엽이 수원시의 극장 간판계를 좌우하게 된 이유이다. 영화계를 호령했던 왕년의 스타들도 눈치를 봤을 정도였는데, 극장 간판 화가들의 붓놀림에 따라 간판 안에서 영화배우들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재탄생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하춘화 쇼’를 수원극장에서 열었는데 ‘켄트지’ 두 장을 합판에 붙여 하춘화의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 요즘 배너 광고처럼 극장 앞에 세웠다. 아마도 이전 극장에서는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하춘화의 부친이 미술부를 찾아와 금일봉을 놓고 갔다. 극장의 영화 간판 화가들은 전국이 비교 대상이었다. 영화사 관계자가 전국에 필름을 돌리며 평가하기 때문이었다. 어느 영화 어느 배우를 어느 극장 누가 제일 잘 그렸다는 식이었다. 또 그는 배우에 따라서 오른쪽 얼굴이나 왼쪽 얼굴을 강조하는 등 신체 부위도 배우의 특성을 살려 그렸다. 명성이 알려지자 그는 대구, 춘천 서울 등 전국을 오갔다. 영화사에서 그를 추천하면 지방의 극장주들이 초빙했기 때문이다. 춘천에서는 사택까지 내어주며 그를 우대하기도 했다.



007시리즈 제13탄-옥토퍼시(1984년)

영화간판 화가 전성시대

간판의 제작 시간은 가로 4m, 세로 2m 소극장용은 대략 3시간. 그러나 가로 16m, 세로 4m짜리 개봉관의 거대한 간판은 적어도 3일이 걸렸다. 이전 간판을 철거한 뒤 흰색 바탕칠을 하고 밑그림을 그린 뒤 덧칠을 하는 등 작업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계속 서서 작업을 하며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므로 체력 소모도 엄청났다.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두고는 작업이 몰려 밤샘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어깨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 김승엽이 극장가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스피드'라고 하였다. 그는 붓을 잡으면 순식간에 그려내는 능력을 지녔다. 지금도 컬러펜슬로 풍경화나 인물화 하나를 그리는데 두 시간이면 족하다고 한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러니 전성기 때는 어땠을까 싶다.

상영 영화가 벤허 같은 대작일 경우 간판의 크기도 커서 극장 식구들이 모두 동원되어야 설치가 가능했다. 영화간판 화가의 전성기는 1980년대 들어 소극장이 생겨날 때였다. 김씨는 당시 수원극장과 중앙극장은 물론이고 경기도 각 지역을 오가며 10여 개의 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제작했다. 이때 수원 시내에만 10여명의 영화간판 화가가 활동하였다. 게다가 레스토랑이며 술집 등에서도 자주 불렀다. 실내장식과 간판에 간판 화가들의 그림과 글씨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부업으로 번 돈이 더 많았다.



많은 간판그림이 걸려 있는 옛 수원극장

화가에서 미술치료사로

그러나 1990년대 몰락기가 찾아왔다. 인건비 등으로 비싼 제작비를 감당해야 하는 예전 간판 시대는 '실사 영화간판'으로 바뀌었다. 또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영화 시장을 장악하면서 더는 실외 간판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도 김씨는 간판을 그리던 그 시절이 행복했다며 웃는다. 최근 병마에 시달려 거동이 불편한 김승엽씨는 아직도 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유명 영화의 DVD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틈이 생길 때마다 진지하게 감상한다. 극장에서조차 보았던 영화를 또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한때는 영화를 통해 갈고 닦은 연기력과 그림 솜씨로 연극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평론을 하는 게 일상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미술치료 봉사를 한다.

서너 명으로 시작된 강좌가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20명을 넘어섰다. 그는 영원한 영화인이자 타고난 화가이다. 그 추억으로 70대 노년기를 동갑내기 부인과 보내는 중이다.



김승엽의 풍경화(2013년)

수원시민의 생명수, 약수

송수복 | 수원사랑 편집위원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심 끝에 개념을 내린 사람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BC624~546)다. 그는 아르케(arche)라는 말로 구성물질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아르케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물이었다.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은 물에서 태어나 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수 세기가 흘러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현재 지구상에서 발병하는 모든 질병의 80%는 물에 의한 것으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다.

그렇다면 인간의 신체에서 물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갓 태어난 아기는 99%, 태아기엔 90%, 유아기엔 80%로 성장하면서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서는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노인이 되면 50%로 급속히 줄어들며 서서히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은 약 3ℓ로 대·소변과 땀 등으로 배출이 되며 이중 일부인 1.6ℓ를 음식으로 보충하기에 실제로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1.5ℓ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인간은 무수한 노력을 해왔다. 주어진 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야말로 부족을 이끌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되었기에 강가나 오아시스 주변으로 부락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치유의 수단이기도 한 물

물은 단지 음용수로써의 역할만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데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여 약수로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질병 호전에 기여를 해왔던 사실도 존재를 한다. 사천

적 의미로 약수(藥水)는 마시거나 몸에 발라서 약효가 있는 샘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약수터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거나 심지어 물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면 모두 약수로 부르니 어느 것이 진짜 약수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약수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몸에 좋은 물로 여겨지는 의사(擬似) 약수들도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광천수(鑛泉水)를 그나마 약수에 가까운 물이라고 한다. 다량의 고형물질을 함유한 물로 좁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물만 약수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편 동의보감 '논수품' 편에는 물의 종류를 33가지나 분류를 하여 각각의 성질과 용도를 설명해 놓았으니 물은 그 자체로도 약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새벽에 길어 올린 우물물로 정화수(井華水)는 성질이 순하고 달며 독이 없어서 인체의 아홉 군데에서 나는 피를 다스린다 하였고 옥정수(玉井水)는 옥이 묻힌 산골에서 흐르는 물로, 성질이 유순하고 독이 없어 장복하면 몸이 윤택해지고 모발이 검어진다고 한다.



팔달산 효원약수터

생활 속의 약수, 약수터

어느 동네든 하나쯤은 존재하는 ‘동네약수터’를 돌아보자. 지금은 음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각각의 관할 구청에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엄격 관리중이어서 안내표지판만 보더라도 그 관리 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약 40여개의 크고 작은 약수터가 존재하나 그중 음용이 적합한 약수터는 약 20여 곳이다. 안타까운 것은 산속의 약수터가 음용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인데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니 원인 제거를 조속히 시행하여 다시금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이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영통구에는 5군데의 약수터가 모두 음용 적합 판정을 받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음용하고 있으며 팔달구에는 숙지산 자락에 2군데와 화성사업소에서 관할하는 행궁쪽 약수터는 4군데로 모두 음용에 적합하며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리고 장안구에는 광교산쪽으로 다수의 약수터가 존재하고 있으나 수원천의 발원지로 알려진 미학사지 절터 약수터를 으뜸으로 꼽는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환경연



팔달산 수성약수터



연무동 동공원 내에 있는 연무약수터

구원쪽으로 약 10여개의 샘터와 문암골 일대에 약 5개의 샘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추후 본지를 통하여 이를 밝혀줄 예정이다. 권선구에는 칠보산 덕분에 다수의 약수터가 있으나 간헐적으로 흐르는 석간수에 불과한 것부터 샘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수터의 물은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지만 산속의 샘터가 오히려 음용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아이러니도 발생하니 우리 모두를 위해 산을 찾는 발걸음 끝에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하는 버릇은 사라져야 한다. 참고로 다성(茶聖)으로 추앙 받는 조선후기의 승려인 초의선사가 제시한 '물이 가져야 할 8가지 덕목'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좋은 물이란 가볍고, 맑고, 차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냄새가 없고, 비위에 맞고, 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덕목에 맞는 물을 찾아 귀하게 음용한다면 진정한 약수란 내 몸을 위한 모든 종류의 물이 아닐까 싶다.



팔달산 팔달약수터

착한 동네 시장, 권선종합시장

조형기 |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 경기지회장

어느 해 보다 춥고 눈도 많았던 지난겨울, 엄동설한 덕에 계절을 잊었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목련이 지고 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린다. 계절의 윤회 속에 우리 인간의 세월이 공존하듯 전통시장이야말로 우리 삶의 정취가 가장 많이 묻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권선종합시장 입구

권선동, 착하게 살길 권한 동네

권선종합시장을 처음 찾은 필자의 첫 느낌은, 전혀 낯설지 않은 곳, 사는 이와 파는 이가 아닌, 전통시장만이 주는 정감 있는 풍경이 유독 강하게 느껴진 것이다. 느낌에 배경을 이곳 권선리(동)라는 지명이 전해주는 착한 이미지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권선종합시장이 자리한 권선리(동)라는 지명은 고려말 충신 3학사 가운데 한명인 이고 선생에 의해서 유래 됐다. 이고 선생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벼슬을 거부하고 운둔한 절개 높은 선비로서 이곳에 살면서 후진들을 양성 하였는데, 이고 선생은 평소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사람들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기를 “자기와 이웃에게 항상 착하게 살아라”라고 일러 왔다. 인근사람은 이고의 높은 인품과 가르침에 따라 착하게 살게 되었으며, 그 후 이곳의 이름을 권선리(동)이라고 불렀다.

먹거리가 넘치는 권선구의 유일한 전통시장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주변 대형마트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곳 권선시장은 여느 대형마트와는 다른 장점이 있는데, 신선한 1차 농산품과 입맛을 돋우는 족발과 순대 등의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자리하지만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효자



권선종합시장을 대표하는 메뉴인 돼지족발



권선종합시장에는 맛깔나는 반찬가게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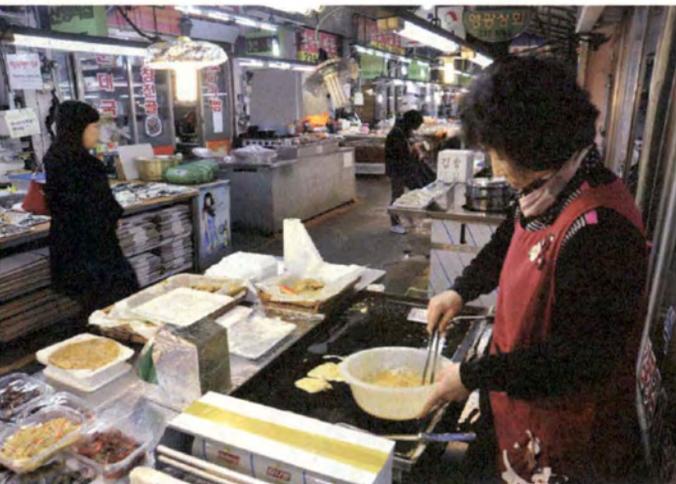
종목으로 불리는 순대와 족발집은 오랜시간 멀리서도 찾아오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체 가게수에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다.

점심차 들른 20년 전통의 백암 순대집은 주변의 회사원을 비롯한 많은 손님들로 붐빈다. 콜라겐이 풍부해 미용에 좋은 권선종합시장 족발은 삶는 비법부터 다른 곳과 달라 맛은 물론이고 가격도 저렴해 저녁이면 반주를 즐기는 손님들로 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곳 족발집은 10년 이상 오랜기간 장사를 해온 곳이 많아 집집마다 저마다의 비법을 갖고 있다.

진순남(57.여) 백암순대 사장은 “하루 평균 백여 명 이상의 손님이 가게를 이용하고 있고, 고기맛을 좌우하는 육수비법은 각 가게마다의 영업비밀”이라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특히 권선종합시장의 모든 족발집은 족발을 시키면 순댓국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무한 리필을 해준다. ‘족발골목’에서는 머리고기, 순대, 순대국밥, 순대곱창볶음 등을 판매한다.

족발 골목의 각종 “전”도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 고추전과 호박전 각종 야채전과 동태전, 동그랑땡은 맛과 영양이 가득한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덩도 많이 줘 이곳 상인들의 인심을 느낄 수 있다.

족발집에 이어 가게수가 늘고 있는 업종이 반찬가게이다. 권선종합시장 주변에 재건축으로 중·소규모의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맛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데다가 메뉴가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바로 조리 해 단골손님이 많다. 우리집 안심반찬가게의



전을 노릇노릇하게 부치고 있는 반찬가게 아주머니



주차장이 넓어 이용이 편한 권선종합시장

엄영자 사장(59)은 “단골손님만도 수백 명”이라며 “하루 이용객도 오륙십 명이 넘는다”고 한다.

권선구의 유일한 전통시장이기도한 권선종합시장의 새로운 자랑거리는 수원시내 단일 전통시장으로서는 가장 넓은 면적의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천2백여 평에 16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권선시장 주차장은 시장 이용객에게 두 시간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식도락을 즐기려는 원정 식도락가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권선종합시장

먹거리 종목이 권선종합시장을 이끌어가는 효자종목이긴 하나 점포 점유율이 전체 점포수의 40%를 겨우 웃돌다 보니 윈스톱 쇼핑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권선종합시장의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권선종합시장에서 김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며 상인회 회장을 세 번째 연임하고 있는 신희균 회장은 권선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주인이 편하면 장사가 망한다”는 신념으로 외적인 환경개선과 더불어 전통시장이 갖는 고유 특권인 정과 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마음의 환경개선”을 자구의 노력으로 갖추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로 권선구 관내의 유일한 전통시장이라는 조건을 살려 주변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자매결연을 늘리고 단골손님 확보를 위한 가교로 삼을 것이다. 변화하는 사람들과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더불어 잘 사는 풍토를 조성해 “권선종합시장”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보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99%에 상인회 가입율 100%의 단합을 보이고 있는 권선종합시장은 “권선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촉진행사로 매월 3회 “시장할인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 최초의 근대식 학교-신평초등학교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처음 학교가 시작된 곳은 우화관이 아니다

수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100년이 넘는 신평초등학교가 광고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그 아픔은 지난 세월의 혼란과 온전하지 못한 기록과 역사의식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 신평학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 신평학교는 1896년 4월 '수원군공립소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자료와 공식적인 학교 교사인 『신평100년사』에도 신평학교가 처음 설치된 곳이 화성행궁의 객사인 우화관(于華館)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학교가 설치된 곳은 팔달산 남쪽 수원향교 인근의 채상공 유택(蔡相公遺宅)이었다. 채상공은 채제공(蔡濟恭, 1720~1799)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집은 채제공에게 하사된 가옥일 것이다. 이 집을 30원(元)에 세내어 학교를 시작했고, 향교의 교위토(校位土)를 양사답(養士畓)으로 하여 매년 도조 50석을 받아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901년 1월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의 첫 1회 졸업생 9명을 배출하였다. 차재정(車在貞) 박구엽(文球燁) 김원학(金源學) 김기환(金琦煥) 표중성(表仲成) 최경완(崔敬完) 임계룡(林桂龍) 차재돈(車在敦) 조상린(趙祥麟) 등이었다.

그러나 향교 유생들과 내장원의 압박으로 학교 운영비로 쓰는 도조 50석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경기관찰사 이근명과 부위 김정택의 노력으로 1902년 12월 화성행궁 남군영(南軍營)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사용료가 없는 건물로 이전하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학교가 화성행궁의 건물로 이전해 온 것은 학교 설립 이후 7년만의 일인 셈이다. 남군영은 신평루 왼쪽의 건물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곳은 1905년 11월 24일 수원헌병분대가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가 다시 남군영에서 객사인 우화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1905년 11월 이전이라 할 수 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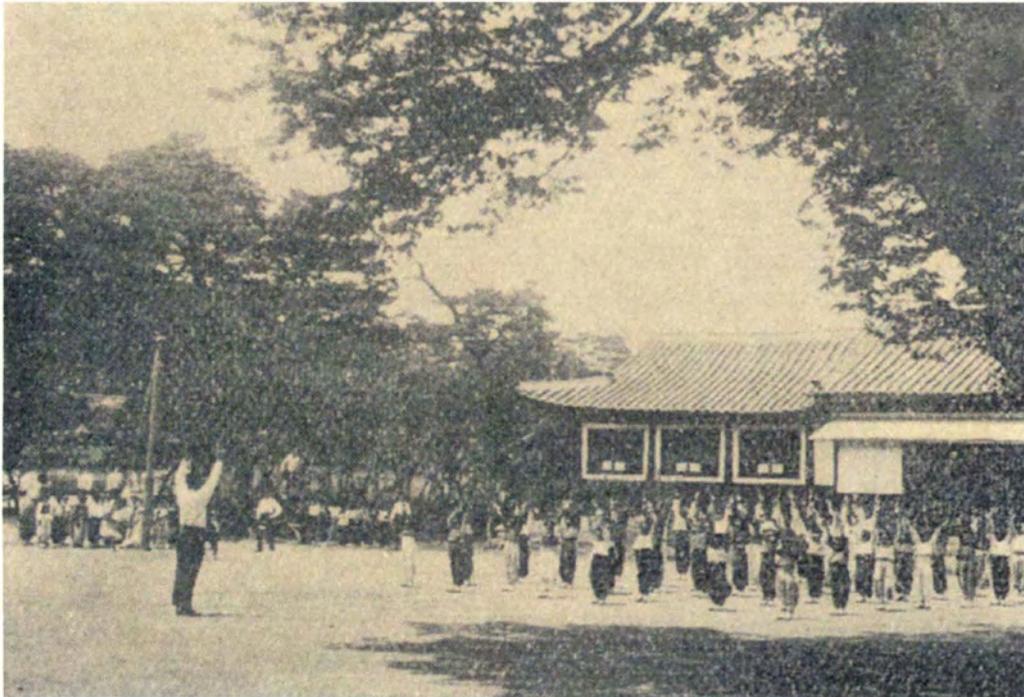
보호조약이 체결되는 어간으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노골화되는 시점이었다.

일본헌병대가 행궁에 주둔하고자 한 의도에 따라 미리 학교가 우화관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헌병대의 입주를 위해 학교 교사를 빼앗는 행위는 일제의 폭력성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면서 일제가 학교 교사로 객사였던 우화관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더욱 놀랄만한 일이라는 점이다.

객사 우화관의 의미

조선시대 객사는 국왕을 상징하는 ‘전(殿)’자와 궁성을 상징하는 ‘궐(闕)’자를 새긴 나무패가 모셔진 신성공간이었다. 따라서 왕을 대신하여 전패를 모신 객사 정청은 고을에서 가장 정중하게 모시던 건물인 셈이다. 조정에서 파견된 사신과 지방의 수령은 객사에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다.

『대전회통』(1865)에 따르면 망궐례는 임금을 공경하고 충성을 나타내기 위한



우화관을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공립보통학교(1916)

의식으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이다. 망궐례를 행하는 경우는 외직에 근무하는 수령들(관찰사, 목사, 부사, 절도사)이 왕과 왕비의 탄신일을 비롯하여 정월 초하루·한식·추석 등 명절날에 왕과 왕비·세자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면서 근무지에서 궁궐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이다.

객사에서 행하는 의례는 임금을 대신 알현한다는 상징성으로 특별하게 인식되었다. 지방의 수령이 집무하는 동헌(東軒)이라는 말도 객사의 동쪽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관아의 중심공간은 수령이 집무하는 동헌이지만 신성한 상징공간은 임금을 상징하는 객사(客舍)였다. 그러하기에 화성행궁의 우화관을 비롯하여 강릉 임영관, 성천 동명관,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 전주 풍패관, 나주 금성관 등의 객사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열어 학교 교사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의 국왕이거나 조선과 조선의 신성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세력일 것이다. 하여 일제는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행궁의 우화관을 교육 창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학교 교사로 내줌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암묵적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객사를 학교 교사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조선의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객사를 활용한 조선황실에 대한 능멸인 셈이다.

학교 이름의 변화 – 수원이라는 이름을 빼앗기다

1895년 고종 임금의 ‘교육조서(敎育詔書)’를 통한 신교육 정책에 따라 ‘소학교령(小學校令)’이 제정 반포되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관찰부 소재지마다 공립학교가 설치되는데, 수원도 이에 해당되었다. 수원지역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기관, 즉 신식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당시 수원은 1895년 5월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수원군이 됨에 따라 1896년 2월에 개교한 학교 이름은 자연스럽게 ‘수원군공립소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896년 8월 다시금 13도제를 채택하면서 수원은 다시 경기도관찰부 소재지가 되었다. 이에 학교 이름은 다시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京畿觀察府公立小學校)’가 되었고, 1906년까지 10년간 사용되었다. 일제 통감부는 1906년 9월 학부령으로 조선인 소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관찰부공립소학교는 ‘공립수원보통학교(公立水原普通學校)’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통상 '수원공립보통학교'로 불렸다. 기존의 소학교라는 명칭은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만이 사용하였다.

여하튼 수원을 대표하는 공립학교라는 자부심이 있는 '수원' 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은 1928년 일본인 학교에게 빼앗겼다. 1928년 조선인 보통학교와 일본인 소학교는 모두 심상소학교로 통일하게 된다. 민족차별을 없앤다는 형식적 조치였지만 일본인 소학교는 '수원고등심상소학교'로 수원이라는 이름을 선점하고 수원공립보통학교는 '신평심상소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 일본인 소학교보다 10년을 먼저 시작한 역사적 전통과 사실을 무시한 일제의 또 다른 만행으로 신평동에 있는 일개 학교가 된 것이다. 1941년 심상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면서 '신평국민학교'가 되었고 1996년까지 신평초등학교로 바뀔 때까지 사용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의 수원국민학교는 매산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팔달국민학교는 다시 원래의 이름 삼일학교를 되찾았다. 이때 신평국민학교는 다시 '수원'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야 했을 것이다. 신평초등학교가 광교로 이전되는 즈음이다. 만약 그 이름만이라도 되찾았다면 광교로 이전하는 것이 그나마 덜 안타까웠을 것을...

수원의 홍수 그리고 치수

이달호 | 수원화성박물관장

정조대의 치수 대책과 홍수 피해

예로부터 “나라의 걱정은 홍수·가뭄의 재앙과 도적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성군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었다. 그 대책으로 제방사업과 방축공사 그리고 하천준설 등이 있다. 저수지와 보를 만드는 일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기본사업이었다. 우리 수원에도 정조대왕이 1795년에 만든 만석거와 1799년에 건설한 축만제가 있다. 이는 가뭄에 대비하는 시설이었지만 홍수 시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은 호남이나 경상도 그리고 평안도·함경도 지역에 비하면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었다. 경기지역과 수원에 나타난 홍수를 중심으로 한 자연재해 기록을 살펴보자 정조가 즉위한 해인 1776년에 경기도에 홍수가



1971년 8월 장마로 불어난 수원천(수원시청)

났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 후 1777년에는 한재, 1782년에는 처음에는 가물다가 나중에 홍수가 있었다.

1783년에는 수원지역에 가뭄이 들고 1786년의 자연재해로 수원의 큰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1787년에 수원에서 진흙이 이루어졌다. 1789년에는 홍수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791년에는 경기지역에 한자[一尺]가 넘는 비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화홍문의 수난

수원지역의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줄기를 타고 앉은 화홍문이었다. 1846년(헌종 12) 6월에 석축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어 1848년(헌종 14)에 개건되었다. 1885년(고종 22)에는 여름 장맛비가 하천을 넘쳐흘러 화홍문 누각의 기둥이 훼손될 정도였다. 이듬해 비용을 마련하여 중수했다는 기록이 1899년 간행된 『수원군 읍지』에 나와 있다.

“이해(고종 22, 1885) 여름 장맛비가 골짜기와 여울을 흘러넘치게 내려 충돌하니 기둥이 떠돌아 다니고 울타리가 무너져 내려 활처럼 휘어졌다. 그리하여 하나의 전각이 심히 위태로워 보이니 살피는 것을 꺼릴 수 없도다. 비용을 마련하고 역사를 시작하니 특별히 진념하시어 내려주신 은혜를 입어 백성들을 번거롭지 않게 하고 공사를 마쳤다. …… 화성 백성들만의 경사가 아니라 곧 한나라의 경사로다.”

1885년 홍수에 크게 훼손된 화홍문을 곧바로 1886년 7월에 중수한 기록이다. 그러나 그 후 35년만인 1922년 홍수에 화홍문과 남수문이 동시에 파괴되었다.

화홍문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훼손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져오는 증언이 참고가 된다. 화홍문에는 물길을 따라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7개 수문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갑작스런 비가 오면 낙엽과



1972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남수동 관련 기사(『동아일보』, 1972. 8. 21)

나뭇가지가 살문에 걸려 모든 수문이 막혀버리게 된다. 따라서 수문은 물을 소통하는 구멍이 아니라 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그리하여 거대한 물터미는 화홍문 석축을 넘어 문루를 덮쳐 쓰러뜨리게 된 것이다. 홍수 때마다 화홍문이 훼손된 이유는 석축 설계가 잘못되거나 견고성의 문제가 아니라 살문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홍수 피해

해방 후 수원지역의 수해 사항을 살펴보면 1968년 9월 6일 수원에 최고 124mm가 내렸으며 1969년 9월 3일에는 시간 당 49.8mm가 내렸다. 1972년 9월 5일에는 신흥초등학교에서 수해로 사망한 학생 6명의 합동위령제가 실시되었다. 1982년 7월 28일에 수원지방에 168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1984년 8월 2일에는 수원에 50mm가 내려 고등동 주택 7동이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87년 8월 30일에는 팔달문 웅성 일부가 폭우로 무너져 훼손되었으며 1990년 9월 10일에는 밤 9시부터 5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려 주민이 식수난을 겪고 원천



1972년 8월 수해를 입은 수원천 모습(수원시청)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어 삼성전기 및 협력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1991년 7월 21일에는 집중호우로 최고 218mm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수원·오산·용인 지역의 21개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조대왕의 양택풍수

수원지역은 신봉초등학교 학생이 피해로 사망한 사건을 제외하면 대홍수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는 지역이었다. 이는 정조대왕이 수원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양택풍수를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조대왕은 고산 윤선도의 '음택풍수'에 의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당대 최고 명당이라고 하는 지금의 용릉에 모시었다.

그리고 용릉 근처에 있던 관청과 민가는 팔달산 동쪽에 계획적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반계 유형원 선생의 『반계수록』의 구상이었다. 도시나 집자리 잡는 것을 '양택풍수'라 하는데 수원의 읍치를 넓고 평평한 곳으로 옮기자는 실학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묘자리의 길흉에 따라 현손 또는 후손이 잘되고 못된다는 '음택풍수'는 비과학적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를 피하고 산사람의 건강을 위해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풍향을 알아보는 '양택풍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수원의 지형은 북에서 남으로 서서히 낮아지고 물흐름은 평택을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동안 화서동·고등동·평동 일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지만 수원시 전 지역이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양택풍수'의 명당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이다.

골목집 이야기

김학민 | 음식칼럼니스트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나 특별히 청소년 시절부터 등산이 취미였던 것은 아니었고, 19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시절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갔다 온 뒤 반 백수건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죽이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 그러한 등산이 지금까지도 물리지 않고 유일한 취미로 남아 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땀 흘려 산에 올라 정상에 앉아 호연지기를 느끼는 등산 '본령의 맛' 외에 다른 무엇이 나를 등산에 매혹되게 했으니,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어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하산 뒤의 뒤편이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전문 산악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심하고 어설픈 '유흥 등산객'의 모습이겠으나, 어찌랴, 나는 이게 더 좋은 것을.

우공이 산을 옮기자면 -

내가 등산을 함께하는 팀은 시인 신경림 선생, 소설가 현기영 선생 등이 멤버인 20여 년 된 '무명산악회', 그리고 고교동창들과 함께 하는 '산친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주로 서울의 북한산을 오른다. 그리고 십 수 년 전 경기문화재단 재직 때 인연을 맺었던 홍일선, 용환신, 윤한택, 정수자, 손태연 시인, 수원화성박물관 이달호 관장, 경희대 김준혁 교수, 굿 연구가 하주성, 음악가 조재식, 사진작가 박희주씨 등이 멤버인 '우공이산'과는 광교산 등산을 즐긴다.

나는 우공이산 멤버들과 등산할 때는 약간 독재를 한다. 따뜻한 봄이건 서늘한 가을이건, 찌는 듯한 한여름이건 차가운 겨울이건 가능하면 산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대비한 극기 훈련이라도 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 횡단에 대비한 체력 다지기라도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산 뒤의 뒤편이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우공이산 멤버들은 산에서 내려온 다음 대개 장안문 부근의 허름한 막걸리 집으로 가는데, 이 집의 안주와 막걸리 맛이 끝내준다.

This is 막걸리 집!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겠지만, 산에서 갈증을 참고 참게 해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한 것은 이 집에서의 막걸리 첫잔의 꿀맛을 보게 하려는 나의 '애정' 때문이었다. 언제나 첫잔의 꿀맛에 감탄하지만, 결국 몇 잔을 마셨는지 셀 수 없을 지경까지 '꿀맛 예찬'은 계속된다. 그 집은 미화원, 막일꾼, 고물장수 등 '수원의 민중'들이 즐겨 찾는 상호초차 장삼이사식인 그냥 '24시 골목집'이다.

내가 골목집을 알게 된 것은 경기문화재단 재직 때였다. 점심때는 장안문 부근의 숨어 있는 맛집 순례를 하고, 저녁에는 거의 매일 수원의 문화예술인들과 골목집에서 막걸리를 매개로 어울렸다. 골목집은 길에서 골목으로 약간 들어간 위치 하며, 나지막한 지붕 하며 막걸리집의 전형이라 할만 했다. 사장이자 주방장인 김재옥씨는 인근에서 비슷한 왕대포집을 운영하는 오빠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골목집을 열었는데, 묵은지찜, 두부부침, 새우젓찌개 등 안주가 아주 맛갈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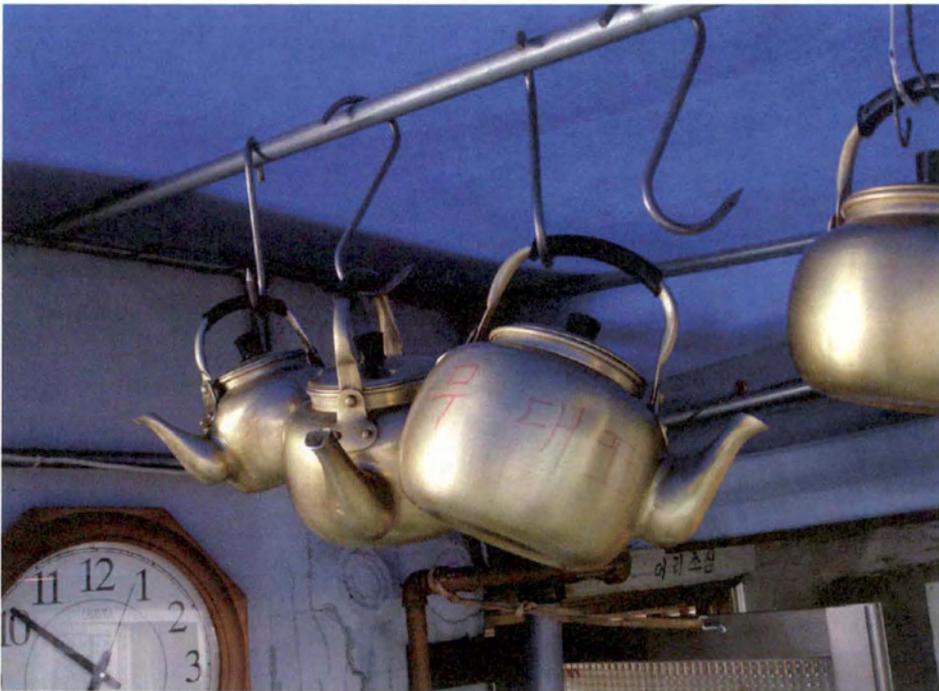


골목집(2006)

수원 화성 답사의 필수 코스

나는 경기문화재단을 퇴직하고 나서도 광교산 등산을 하거나 수원에서 약속이라도 잡히면 항시 이 집엘 가게 되는데, 한결같이 친절하고 넉넉한 김재옥씨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물론 막걸리 맛과 음식 맛도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나는 골목집을 〈한겨레 21〉에 연재하던 내 음식 칼럼에 소개했고, 누가 제일 좋은, 혹은 추천할만한 술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골목집이라고 답했다.

가끔 단체 화성 답사 요청을 받으면 행궁과 성곽을 돌고는 언제나 골목집에서 막걸리를 곁들인 늦은 점심으로 연계 관광을 마무리했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수원의 맛’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 같은 분들도 화성 답사 끝에 골목집에 꽃혔고, 이런 저런 소문을 듣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도 골목집에 자주 왔다.



분위기를 더해줬던 막걸리 주전자(2006)

팬(fan), 펀(fun), 판

김종화 | 경인일보 기자

글을 시작하며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질문은 “프로스포츠단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다. 이 질문에 대해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또는 “팬들을 위해”서라고 답한다. 그리고 프로스포츠는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팬들 또한 프로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것을 얻는다. 승리에 대한 희열과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스포츠를 통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이다. 여기에다 경기장에서의 단체 응원은 한국 프로스포츠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종목별 팬 문화

한국에서 프로스포츠의 시작은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다. 6개 구단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초창기 지방색을 띠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80년대 프로야구는 전라도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던 해태와 부산·경남의 롯데, 대구·경북의 삼성의 대결은 지역감정까지 겹치며 치열한 양상을 넘어 폭력적인 사건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해태는 전문 응원단을 꾸리기 어려워 모그룹의 직원들이 응원을 준비해와 해태 팬들의 응원을 이끌어 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던 프로야구단들은 80년대부터 전문적으로 응원을 이끌어가는 치어리더들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해태는 모그룹의 직원들이 응원을 준비해와 소속팀 팬들의 응원을 이끈 것이다. 이런 응원 문화는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마케팅과 접목돼 전문적이면서 체계화 된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 한 예가 SK와이번스의 스포테인먼트가 대표적이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한 스포테인먼트는 경기장 불꽃놀이, 인기가수 초청 미니 콘서트 다양한 볼거리

를 접목시켜 화제가 됐다. 지방색을 활용한 팬 문화 형성도 한국야구만의 독특한 색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의 신문지 응원이 대표적이다.

야외 스포츠 종목과 달리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로 대표되는 실내 종목은 조금 다른 형태다. 또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선전하며 남성 중장년층에 국한돼 있던 팬 층이 젊은 여성층으로 넓어졌고 이들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응원 문화로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프로야구와 같이 치어리더를 활용한 응원을 펼치지만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프로농구는 쿼터와 쿼터 사이의 휴식시간 뿐 아니라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작전을 논의하는 짧은 시간에도 치어리더들을 통한 다양한 응원을 통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다보니 크리스마스나 신정, 구정 등 특정한 날에는 미니 공연을 준비해 팬들을 경기장으로 이끈다.



열렬히 응원하는 야구팬들

한국 최초의 프로축구 서포터즈 그랑블루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1부리그(K클래식) 수원삼성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팬을 동원하는 팀 중 하나다. 그 원동력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서포터즈'라는 형태의 팬 조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원삼성 공식 '서포터즈 그랑블루'(Grand Bleu)는 1995년 12월 23일 PC 통신 동호회로 시작한 사이버윙즈(CyberWings)라는 조직에서 시작됐다. 사이버윙즈를 중심으로 여러 소모임들의 연대하면서 단체는 점점 성장했으며 그랑블루의 탄생 이후 다른 프로축구팀들에도 유사한 서포터즈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수원삼성은 그랑블루의 탄생이후 여러 소모임들의 연대 조직인 하이랜드 에스페라는 이름의 서포터즈도 있었다.

수원삼성의 거대 '서포터즈 그랑블루'와 '하이랜드 에스페'는 함께 수원월드컵경기장 N석에서 응원했는데, 그랑블루는 1층, 하이랜드 에스페는 2층에서 각각 달리 응원했으나 지난해 5월 그랑블루와 하이랜드 에스페가 '프렌데 트리콜로'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그랑블루라는 명칭은 수원시민들에게 헌정하게 되었다. 수원삼성의



서포터즈는 한국프로축구 서포터즈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기 내내 서서 응원하는 문화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인 붉은악마의 모태도 역시 그랑블루다. 팀 색상인 파랑색으로 경기장마다 물들이는 서포터즈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모습이 흡사 질푸른 바다와 닮았다는데서 착안한 이름인 그랑블루는 1999년도부터 불려 왔다. 수원삼성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푸른 물결을 이루는 그랑블루의 모습이 수원의 대표적 팬문화가 아닐까 싶다.

지난 1월 수원 스포츠계의 크나큰 경사가 생겼는데 야구의 10구단이 수원을 연고지로 해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수원에도 본격적인 야구문화가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혹자들은 부산에서 축구팬하기와 수원에서 야구팬하기를 가상의 대결로 우스갯소릴 만들기도 하였다. 그만큼 관심의 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감안하면 다변화된 팬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큰 이슈가 된 것이다.

본격적인 스포츠의 시즌이다. 그랑블루를 선두로 한 수원지역의 축구팬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야구와 배드민턴 등 각 분야에서의 팬들 또한 멋진 활동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다. 수원 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운 질푸른 바다 물결 이외에 또 다른 색깔과 그들만의 문화로 우리의 기억에 남을지 사뭇 기대가 크다.



프로농구단의 치어리딩

누구나 함께 즐겨요

심숙영 | ㈜설날 홍보팀장

바라만 보던 지동으로

팔달산의 화성장대에 오르면 동쪽 성곽을 따라 바라만 보던 곳, 교회 건물만 삐죽 보이던 동네다. 창룡문 관광안내소에 있다 보면 점심때를 알려주는 초등학교 하굣길의 어린이들의 재잘거림. 게다가 성곽의 안과 밖을 드나드는 주민들의 일상을 마주하며 '성곽과 어우러진 시민의 삶'이 좋아 화성의 새로운 의미를 찾던 시절을 뒤로하고 언덕을 올라 다다른 핑퐁음악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다.

지동. 내게는 찰지고 쫄깃한 지동순대로 더 친숙한 이름이다. 못골. 지동의 옛 이름인데 한동안은 지동의 옆 동네로 착각한 적이 있다. 수원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만큼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 어귀에는 500살 된 느티나무가 서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성황당이 있었고 선사시대 이후 마을을 이루며 오늘까지 이어진 삶의 터전이다.

지동에 가면 오늘도 낡고 색이바랜 간판을 단 구멍가게,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은 사이로 구부정하게 나 있는 비좁은 골목길, 막다른 골목집, 문 닫은 지 오랜 목욕탕, 대문 밖 화장실 등이 살아있다. 그래서인지 벽화 골목골목을 누비며 간간이 만나는 오래된 건물과 개짖는 소리,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트로트 반주소리는 옛 동네의 기억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준다.

명품 '지동 10리벽화길'

벽화골목에 들어서면 어린 시절 길을 잃어 헤매다 막다른 골목길을 만났을 때의 공포감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지동의 벽화 제작은 마치 사람을 대하는 듯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 기존의 벽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틈이 있으면 메꾸고 벽을 쪼아내고 문질러 물을 뿌려 깨끗이 닦아낸 다음 말려서



지동 벽화거리

시멘트로 깔끔하게 미장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벽화에도 수명이 있다? 보통 2년이지만 지동은 5년까지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 중 주 사업인 벽화그리기는 올 해 3년차에 들어섰다. 담벼락에 붙어 있던 평상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 골목길에 펼쳐진다. 어떤 평상은 가로등까지 갖춘 세련된 모양이다.

“어! 살아있네~”

담장이 살아 움직인다. 주민들의 마음이 이제 서로의 담장을 넘나든다. 축대에 별이 총총히 그려진 주민의 집 옥상에서는 해마다 노을 음악회도 성대히 열리고 있다니 말이다.

2011년 시작해서 마지막 벽화가 완성되는 2015년에는 총 3.6km에 달하는 거대한 벽화마을 길이 만들어진다. 수원의 명품으로 자리매김 할 ‘지동 10리벽화길’이다.

함께 즐기는 주민들

2년 전 해님달님 작은 도서관이 등지를 틀었다. 지동은 복 받았다. 작은 도서관하기에 너무도 좋은 공간이 지동에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 책,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런 노력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보통사람들의 일상과 실천은 지시에 따르는 것 보다 그들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 주인공인 꽃집할머니 김연자, 권복남 부부를 만나보았다.

“통장이세요? 마을일 맡아보고 계세요?”

동네일을 맡아보는 통·반장은 물론이겠고 골목골목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주민



들의 표정과 이야기를 들으며 관광객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질문이다.

“전망대에서 옥상 위 화분이 일부 보이던 걸요?”

“성치 않은 몸으로 옥상까지 물 길어 나르느라 힘들어서...”

할아버지의 걱정에서 지동주민센터
기노현 팀장이 그 자리에서 빗물 저
금통을 소개한다.

“이거 좋네요~ 빗물엔 영양분도 많
아 좋고, 수도물도 아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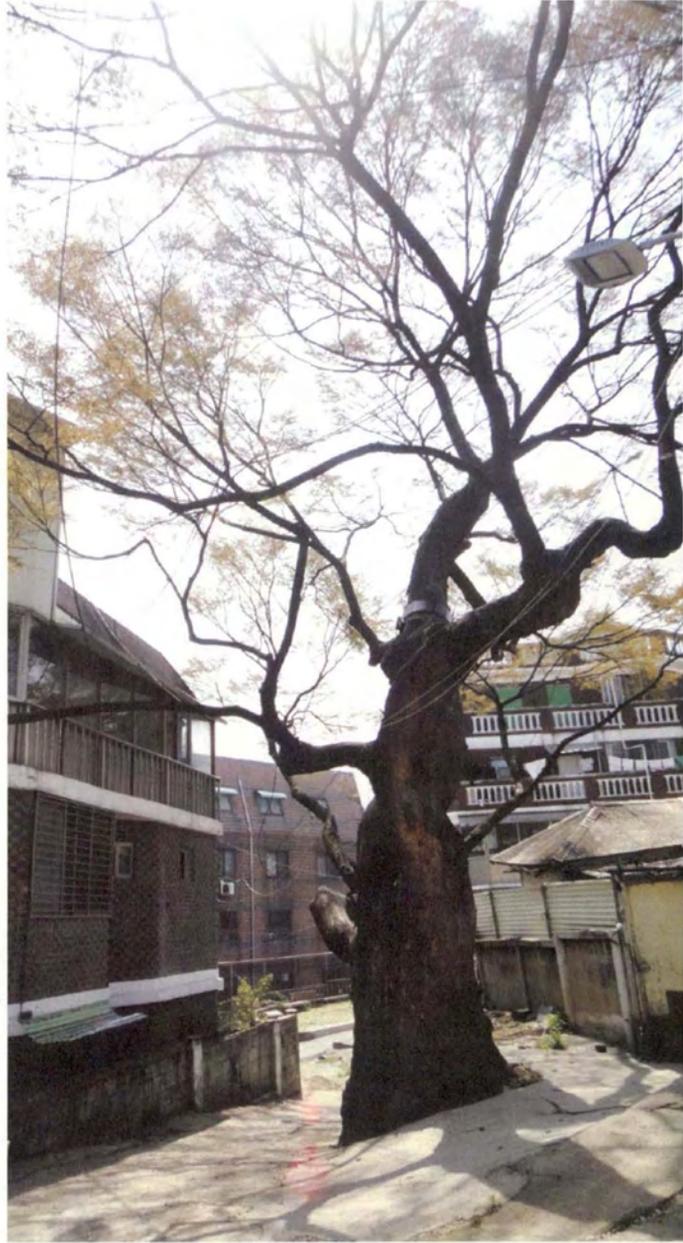
자원봉사자들이 하도 여닫아 그런
지 때문 잠금장치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지만 손보는 것도 뒷전일 정도로
마음의 문까지 활짝 열었다.

속살까지 보여주는 곳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일에서 제
일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보려고 노
력하는 것 아닐까?’ 지동이 먼저 시작
했다.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수기사(수원을 기록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사진으로 지동사람
들을 기록한 것이다. 반응은 거의 폭
발적이었다. 사진전을 관람하던 주민
들이 옛 사진을 가리키며

“저 정도 사진이라면 우리 집에도
있는 걸...”

이렇게 시작된 주민의 자부심은 마
울만들기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를 부
여해주기에 충분했다. ‘주민도 예술
가’라고 인정하고 출발하니까 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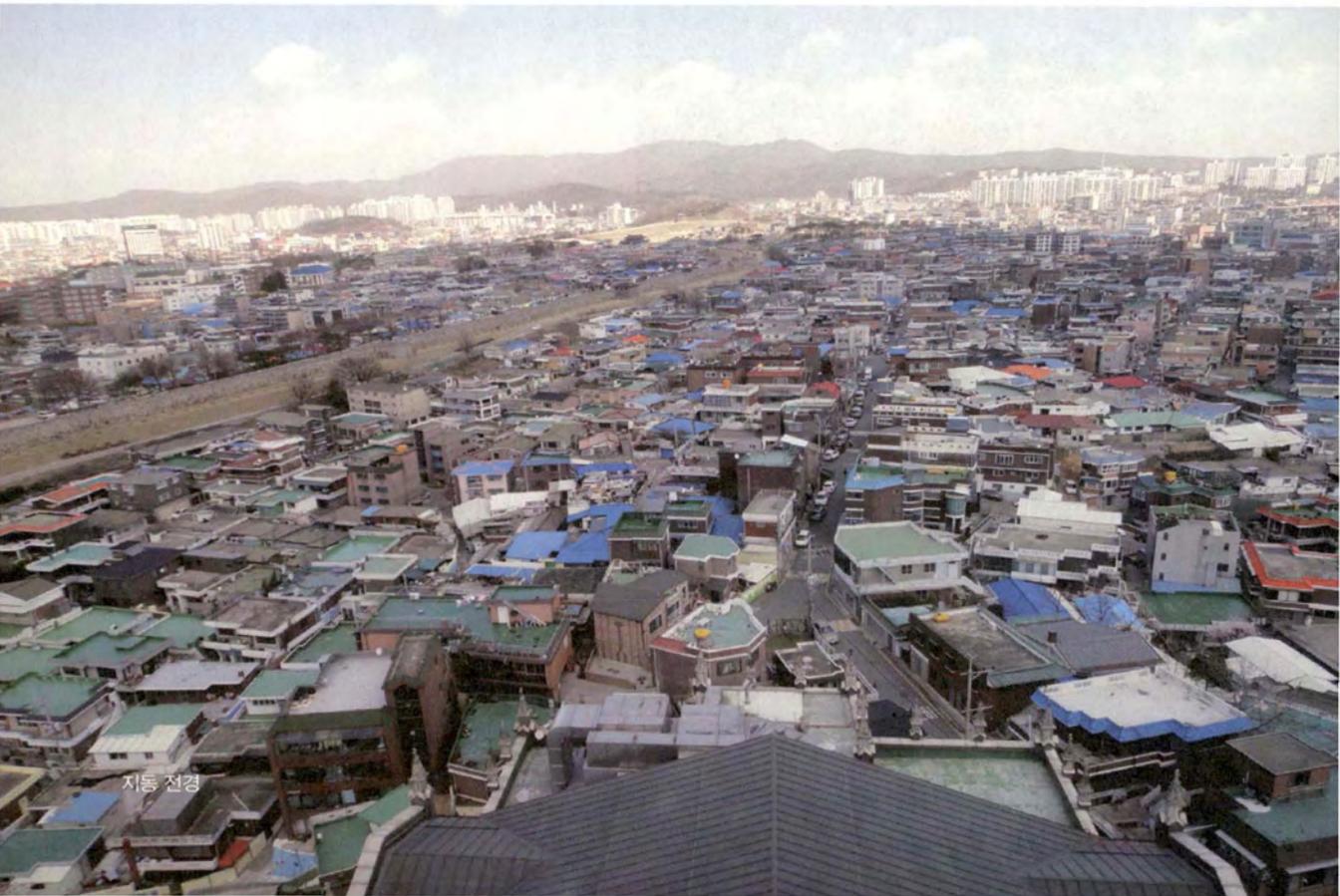
지동 마을입구에 있는 500살 된 느티나무

일이었다. 더 나아가 사람향기 진한 화성 동쪽 마을 이야기인 <지동 마을이야기>를 발간해 지동을 살펴보고, 그리고, 찍고, 전시하는 깊은 맛까지 보여줬다.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면서 상인들의 얼굴도 변했다. 늘 부지런함이 배어있는 하루지만 동네일 보다보면 힘들어 짜증날까 했는데 마음도 털어놓고 생각을 나누고 하다 보니 오히려 밝아졌다고 한다.

지동에는 빈 상가와 빈 집을 리모델링한 커뮤니티공간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 또 한 곳 문을 열었다. 되살림 발전소다. 벽을 장식하고 있는 달팽이는 수년간 주민들의 밥상에서 가지가지 반찬을 올려놓았던 알콩달콩한 사연이 담긴 접시로 꾸몄다. 이내 '지동 밥상머리 이야기'가 술술 피어오른다.

지동은 용마루길 어느 집이든 옥상에만 올라도 수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경이 펼쳐진다. 누엣누엣 해질 무렵이라면 더 할 나위없다. 해가 저도 성곽의 야간조명이 빛을 발하고 무대 배경은 사계절 멋들어진 병풍을 두르는 세계문화유산이 된 화성이다. 무대의 주인공은 지동주민이고 관객은 '누구나' 이다.



문화원이 한일

2013 인문학 역사탐방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역사탐방을 4월 2일을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여주, 강화도, 강원도 영월을 총 30여 차례 탐방을 다녀왔다. 인문학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인문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재미를 함께 느끼는 자리를 가졌으며, 앞으로 진행될 70여 차례의 탐방은 인문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9차 해외문화탐방, 중국-산서성



2013년 4월 29일~5월 3일 4박5일간 중국 산서성으로 해외문화탐방을 다녀왔다. 태원, 면산, 평요고성, 왕가대원, 도화곡을 탐방해 황하 문명의 태동지인 산서성의 절경과 문화를 체험하여, 세계 속의 찬란했던 동양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민속예술단 수원두레 “꽃처럼 나비처럼”



5월 12일 수원민속예술단의 수원두레 공연이 수원화성 행궁 광장을 수놓았다. 이번 공연 “꽃처럼 나비처럼”은 수원두레를 중심으로 수원 민요, 북소리를 비롯한 농악에 깃든 깊은 전통의 소리와 부채춤, 승무의 아름다운 선의 조화로 이루어진 전통예술로써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아 많은 이들의 주말을 풍성하게 했다.

문화원이 할 일

수원-익산, 지역문화예술교류 “추억은 방울방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수원시와 익산시가 손을 잡았다. 각 시의 시민들은 6월 4일(화)~6월 5일(수), 6월 18일(화)~6월 19일(수) 두 차례 방문이 이뤄지며, 한차례는 수원에서 익산을, 나머지 한차례는 익산에서 수원을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 지역문화예술교류 “추억은 방울 방울”을 통해 두 지역은 수원의 수인선, 익산의 군산선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수원화성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6월 6일(목) 유명 여행 블로거들과 함께 수원 화성 팸투어를 한다. 블로거들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수원 화성행궁을 비롯해 해우재, 행궁동 공방거리, 수원시 생태교통 추진기획단을 방문하고 수원 왕갈비, 수원 통닭 등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체험한다. 이번 팸투어는 수원의 다양한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10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한양에서 수원에 이르던 정조대왕의 능행길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7월 28일(일)~7월 31일(수)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능행차길은 10회를 맞이해 서울시와의 공동주최로 더욱 알차게 구성되었다. 창덕궁을 출발해 용릉을 거쳐 수원화성 성곽을 도는 62.2km의 여정을 도보와 버스로 순례 한다. 서울과 수원·화성·오산의 초(2002년 이전 출생자까지)·중·고등학생 300명은 정조대왕의 아버지에 대한 호심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노량행궁, 과천행궁, 용·건릉, 수원화성 등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서예박물관 특별기획전 ㉑ 서예문인화가 초대전 “애국의 창(窓)”

- 전시기간 : 2013. 8. 14(수) ~ 9. 15(일)
- 장 소 : 수원박물관 기획전시실(1층)

8·15 광복절을 기념해 국권회복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의 시·어록·독립운동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작품 전시가 수원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역량 있는 서예가·문인화가 100명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관
- ※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성곽의 여름밤 (설병훈)



수강생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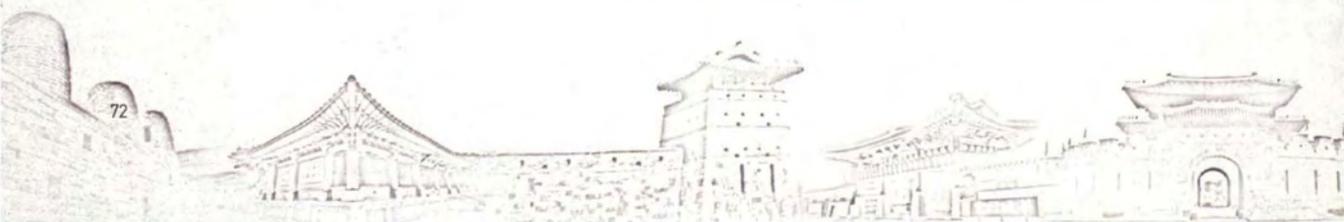
수원문화원 문화학교

NO	문화학교명	요일	강의시간	지도
1	경기민요반	화·금	11:00~12:30	김옥자
2	규방공예반	월	14:00~16:00	나정희
3	꽃꽂이반	화	10:00~12:00	이송자
4	노래부르기반	목	10:00~12:00	유진표
5	도자기공예반	금	10:00~	서승교
6	맥간공예반	금	10:00~12:00	이수진
7	모듬북반	화 목	13:00~15:00 10:00~12:00	김옥기
8	사물놀이반	월·금	15:00~17:00	김현수
9	서예반	수	10:00~12:00	안효영
10	서예반(장안구 분원)	월	10:00~12:00	김진숙
11	전통(한복)의상만들기반	월	14:00~17:00	이성섭
12	하모니카반	수	14:00~16:00	김혜숙
13	한국무용반	월	10:00~12:00	여지영

▶ 모집방법 : 방문접수

▶ 수 강 료 : 분기별 30,000원 / 회비 : 분기별 15,000원

▶ 문의전화 : 수원문화원 (031) 244-2161~3



정조의 효심이 깃든 도시 수원

Tourist Map of Suwon



주요기관안내			번호		
E3 경기도청	031-249-2114	C5 경기도대학교	031-249-9114	고수도로	소방안전
E5 수원시청	031-228-2114	D1 성균관대학교	031-290-5114	국기	국기
F2 권선구청	031-228-6114	D5 수원팔도집경자정	031-259-2012	지하철	지하철
C3 장안구청	031-228-5114	D2 중부경찰서	031-271-0114	도청	도청
D5 팔달구청	031-228-7114	D7 남부경찰서	031-216-0111	시청	시청
E6 영통구청	031-228-8585	F2 서부경찰서	031-802-0112	시청	시청
E6 경기도의회역전당	031-230-3200	D2 중부소방서	031-245-2119	시청	시청
C3 제2아울렛역전당	031-228-2735	F6 남부소방서	031-236-1119	시청	시청
D5 성안대교교차로	031-245-1491	C4 수원교육청	031-250-1335	시청	시청
D5 성안대교교차로	031-249-7114	C5 경기도교육청	031-248-1040	시청	시청
D6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114	C5 경기지방검찰청	031-245-0112	시청	시청
D5 동수행원	031-210-0114	D7 수원지방검찰청	031-210-4200	시청	시청
C6 아주대학교	031-219-2114	D7 수원지방검찰청	031-210-1114	시청	시청
F8 김해대학교	031-201-2114			시청	시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은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이 1794년(정조 18년) 1월에 착공하여 2년 9개월 후인 1796년(정조 20년) 9월에 완공하였다.
 정조대왕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부근에 용주사를 세워 부왕의 명복을 빌었다. 당시 화성 아래에 있던 관청과 민가를 팔달산 아래로 모두 이전시키고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킨 것이 현재의 수원이다.
 화성의 축성은 역대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물은 41개소이며 미복원 시설물은 7개소이다. 화성은 가장 근대적인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Suwon Hwaseong World Heritage Sites



수원민속예술단

NO	요일	시간
1	월·금	13:00~15:00
2	토	10:00~12:00

동 아 리

NO	동아리명	요일	모임시간
1	문미회(유화)	목	10:00~
2	비르투오조	화·금	09:00~13:30
3	수원·화성소리사랑	목	13:00~15:00
4	여성타악 "난장"	화·목	15:00~17:00
5	춤사랑	수	10:00~12:00
6	태평소 "애채"	화·목	18:00~20:00
7	한땀두땀 우리한복	금	14:00~17:00
8	사계절 봉사회	둘째, 넷째 목	10:00~
9	소리뜰(하모니카)	목	14:00~16:00



IBK홍보대사
송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강형준님



IBK예금고객
박성숙님



IBK홍보대사
김유빈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라는 이름에
「기업」이란 글자가 들어 있어,

아직도
기업은행을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 주부, 군인, 근로자, 회사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